

문헌상
해방후
대한국

시흥문화

Siheung Culture
Vol.16 2013



군자봉 성황나무 김중환 作



금이동 정자나무 군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인 정원철 발행처 시흥문화원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조은프라자 4층) T. 031-317-0827 기획편집 공감창

※ 이 책은 시흥시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시흥문화원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행적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사람들은 엄동설한의 추위에 한껏 웅크리다가도, 매화꽃 피는 시절이면 훈김을 밟으며, 한 해 한 뼘 자란 키로 하늘을 마주 대합니다. 생명이란 해마다 계절별로 반복되는 부침과 요동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유기체의 순환처럼 인간사도 출렁출렁, 계절도 출렁거립니다.

우리는 종종 일정하던 심장 박동 수가 빨라졌다가, 무언가의 작용으로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바로 문화의 작용입니다. 문화는 갈등의 중재자로서 생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과 친구의 자상한 위로가 바로 정신문화인데요, 문화는 무형이며 무게 없는 비물질이지만, 생기를 북돋워 줍니다. 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식량의 문제는 항상 중요하였지만, 공기의 질은 최근에야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문화의 중요성 또한 이제야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문화란 휘저어도 잡히지 않는 공기처럼 노력해도 표 나지 않고, 무심해도 그 표가 안 나는 존재지만, 물질이 풍부한 현대인이 불행한 것은 바로 문화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문화의 부재를 메우기 위한 노력, 그 소리 없는 몸짓을 모아서 시흥문화원에서는 매년 책으로 발간하곤 합니다. 기록의 필요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문화현상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시흥문화 16호 속의 글들은 문화원이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한 작은 흔적과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행적을 모은 것입니다.

하천수를 정화하려면 시민들 각자가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작은 관심이 중요하듯이, 문화융성을 통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큰돈 쓰는 프로젝트보다도,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찾는 각자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14년 갑오년에도 작지만 소중한 문화현상을 발굴하고 나누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원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연꽃 피는 연성골, 시흥문화원에서

시흥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시흥시의회 의장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시흥문화 제16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아름다운 시흥문화를 꽃피우고자 힘쓰고 계시는 정원철 시흥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시흥문화 제16호가 발간되기 까지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문화원은 우리 시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활동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시흥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흥문화 소식지는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우리 시흥시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소중한 문화적인 결실들을 담아 많은 시민들에게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 의식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문화와 희망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에는 열정적인 창작정신과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맺어진 시흥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시흥지역문화를 알리는 귀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흥문화 소식지가 우리의 뿌리를 지키고 시흥의 전통문화를 계승 창조하는 소중한 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자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용기와 희망이 있는 갑오년!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하시는 일들과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례

문화비전 선언

발간사/축사
시흥문화원장
시흥시의회 의장

사진으로 보는 시흥문화

시흥의 나무
16

대담
문화원장 대담
20

특별기획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24
정조대왕과 시흥
35

문화의 현장
시흥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축제 연성문화제
40
삼색(三色), 문화원 후원의 밤
42
제1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를 마치고
44

문화평론
시흥시 전통문화 보존 방안
46

향토문화재
봉수대(烽 燧 臺)
52

문화탐방
19회 경기도 민속 예술제를 다녀와서
56
정선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교류
59
'책 놀이터 도서관에서 만나다'
62

수필
시흥, 단상
64

시흥탐방
호조별 축제와 매화동 사람들
66
도일시장 수산대장간 장인(匠人) 윤영수
68
안산농협 재발견
70
베트남 청년(부강대우)의 시흥생활
76

문화초점
능곡동의 송덕비, 그것이 알고 싶다!
78
경효재(敬孝齋)의 미래가치를 묻다
81
Greg Priester(그렉 프리스터)
스타강사를 만나보다
84
'군자봉 성황제'
86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 후기
89

문화인
서예가 전남훈
95

시흥의 인물
97

시흥의 미래
소산서원 체험소감문
98
능곡高 취타대
100

문화강좌안내

회원가입안내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전통문화축제 22회 연성문화제

올해 22회를 맞는 연성문화제는 시흥시민들이 모여 시흥의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전통 문화축제이다. '연의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연꽃테마파크에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중국에서 연꽃을 가져온 강희맹 사신단 행렬과 명창 안숙선 공연, 그리고 이어진 한여름밤의 문화 콘서트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에는 연꽃과 관련된 다양한 식음료가 선을 보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 '한여름밤의 문화콘서트'

한여름밤의 문화콘서트는 연성문화제의 첫째날, 개막식 이후 개최된 문화 예술 단체의 공연이다. 문화콘서트에는 통기타 연주, 살풀이춤 등을 선보였고 특히 밴드 반주를 통해 민요, 아리랑을 부르는 퓨전 공연이 주목을 받았다.



2013인문학산책

시흥지역문화세미나

10월 17일 시흥문화원 다목적홀에서는 제1차 「시흥 지역문화 세미나」가 열렸다. 2013시민문화강좌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문화주간 행사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많은 시민과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학술의 장이 되었다.



시흥문화원 후원의 밤

가을맞이 문화콘서트

8월 29일, 관곡지에서 시흥문화원 후원을 위한 가을맞이 문화콘서트가 열렸다. 회원들의 재능기부와 사은품 회사로 전통무용, 가야금 연주 등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렸으며, 회원들과 시민들이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년을 이어온 시흥의 무형문화재 군자봉성향제

군자봉성향제는 신라시대의 경순대왕을 모시는 의례로 매년 음력 10월 3일, 군자봉 정상에 있는 군자성황사지(시흥시 향토유적 14호)에서 열린다. 조선 전기의 기록물인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된 전통있는 행사이다. 현재는 시흥시와 시민들,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11월 4일 유가행렬을 시작으로 11월 5일 까지 개최되었다.



2013인문학산책

인문정신문화강좌 '전통의 향기'

시흥문화원은 12월에 시민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 행복을 줄 수 있는 인문학 주제들을 선정하여 강좌를 열었다. 강좌 내용은 전통음악과 한시, 한국 무용, 우리나라의 신분제도 등의 전통문화에 대한 것 등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무료로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3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사업

정선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

시흥문화원은 지역 문화원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정선문화원과 협력하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연 교류를 갖기로 하였다. 10월 22일, 23일 양일간 시흥문화원 어르신나눔봉사단 레전드 잉벌로 밴드가 정선을 방문하여 5일장 상설무대에서 공연을 열었다. 어르신들의 열띤 공연에 정선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더해져 신명나는 무대가 만들어졌다.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포천종합운동장에서 9월 27~28일 양일간 열린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시흥을 대표하여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가 출전하였다. 문화가족과 시민들이 응원단을 조직하여 우리 월미팀을 응원하고 아울러 포천 아트밸리 등 포천의 이름난 곳을 탐방하였다.



2013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전승사업발표회

12월 20일 시흥문화원은 2013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전승사업발표회를 가졌다. 전승사업을 진행해온 일반부와 청소년연합팀, 논곡중, 군자공고 등 학생들이 발표하고 문화가족과 시민들이 참관하며 서로 교류하는 한마당이 되었다.

2013인문학산책

역사문화탐방 '정조대왕의 발자취를 따라서'

11월 15일, 시흥문화원 문화가족들은 정조대왕의 발자취를 따라 가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당시 능행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탐방을 하였다. 이번 탐방은 정조대왕이 1797년 8월에는 김포 장릉을 둘러 현릉원을 갖춘 행행으로 우리 시흥을 지나 안산행궁에 유숙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2013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

시흥시는 새우개마을에서 부르던 바닷가노래와 호조벌 들녘의 일터에서 부르던 들노래, 그리고 상여소리 등의 시흥시 향토민요가 보존, 전승 되고 있다. 따라서 시흥문화원에서 국악인 박일엽이 『시흥의 소리』를 전승 교육하는 한편, 문화생들과 시흥의 향토민요를 재현한다.



시흥의 나무

우리 시흥시는 유난히도 역사적인 유적이 많다. 오이도의 패총과 능곡동 선사주거지며 조남리 고인돌 등이 좋은 예이며 고려시대의 유적인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의 우리와 같이 사람이 살아왔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마을 어귀나 당산 등 필요한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무를 심게되고 그 나무는 오랜세월동안 살아 남아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만져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있으면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 보이고 말소리가 들리는듯하여 숙연해지는 마음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존해 준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강화도 마니산과 함께 지세가 동국에서 으뜸이라는 군자봉에는 고려때부터 성황사가 있었고 자연 그곳에 정자나무가 있어 이를 우리는 성황목이라 부른다 몇천전만 해도 수령 800 년이라는 표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어지고 성황사에 대한 유래만 적혀있다. 금이동 정자나무 군도 500 년 된 정자나무 네그루가 줄지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내표지는 물론이고 공장을 지으면서 파여져 한그루는 서너평도 안되는 흙무더기가 4m 쯤 돌출되어 덩그렇게 서있다. 식물 특히 거목의 생장에는 물이 절대적일텐데 돌출된 흙더미의 보습이 걱정이다. 또 600 년 된 장곡동 길방나무(측백나무)는 개발에 위태하고 그옆의 정자나무는 웬일인지 작년의 삼복더위에 10 m 쯤 아래로 옮겨서 물도 안주더니 끝내는 말라 죽어버렸다. 안현동의 350 년 된 팽나무며 길 한가운데에 서있어 차에 반히고 상하여 훼손이 심각한 미산동의 정자나무와, 4층 빌라보다 더 높이 자라서 밑통이 서너아름이 되는 아마도 전국에서 그 크기가 제일 인 대야동 백목련 나무는 어느집 고물상 폐가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포동의 500 년 된 은행나무와 정자나무 그리고 200 년 된 소나무는 그나마 보존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어서 마음 놓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아끼고 사랑하여 소중히 관리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이 귀한 나무들은 우리도 잘 관리하여 앞으로도 미래 후손에게 율창한 모습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 특집을 싣는다.

김종환 述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현)

한국문인협회 시흥지부 감사(현)



포동 은행나무



장곡동 측백나무



문화원장 대담



지난 6월21일, 시흥문화원 최초로 선거로 당선된 제7대 정원철 시흥문화원장을 만나 시흥문화원의 비전과 당면한 문제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안녕하세요, 취임하신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마다 한 개의 문화원을 인가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시흥시문화원지원 및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지역고유문화의 발굴, 전승, 창달의 사명을 띠고 국내외 교류 및 사회교 육활동,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특수법인입니다.

문화원의 역할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표출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지역 정체성 확 립과 지역 정신 구체화 등의 인문학적 소통을 통하여 지역민의 행복 증진 역할을 합니다.

선거 때 어떤 공약을 하셨고,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내부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사님과 회원님들께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회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를 약속하였으며, 사무국 개혁으로 사무국과 회원과의 원 활한 소통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약속한 삼대 위원회를 가동하였습니다. 연간집 시흥문화를 발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를 시작하여 회원의 손으로 직접 시흥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를 가동하여, 세 번의 회동에서 시흥시의 자랑스러운 점 등을 의논하고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를 의결하여, 지난 10월17일 '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를 많은 회원,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습니다. 문화원의 비전 확정 및 역할 논의를 위한 워크숍은 내년 봄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년부터는 정책위원회에서 시흥문화원사건립추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추진위원회는 금년도 연성문화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기반으로 하여 차년도 사업에 때맞추어 개최하기로 하는 등, 삼대 위원회는 약속대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무국 개혁은 활기찬 사무국,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원의 기능을 책임지는 사무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계수화할 수 없지만, 직원들의 헌신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으며, 사무국을 접하는 회원들이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무국과 더욱 긴밀한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무국 직원들 역량이 확충되어 개개인이 문화행정 전문가로서 시민과 회원들이 소중히 여기는 전문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시면서 평상시 여가 선용은 어떻게 하세요?



공적인 인터뷰여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하니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저는 여가시간에 예술활동으로 사회생활에서 쌓이는 긴장과 개인적 행복을 조율하며 삽니다. 생활 속에서 착안한 소재를 정리하여 시 쓰기에 집중하면, 쌓인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일은 시 가르치기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만나 좋은 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그 서정을 공감하다보면 이심전심 행복을 느낍니다. 문화원에서도 수요일 저녁, 퇴근 후에 한시와 시조를 함께 읽는 정형시창작교실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면 피로가 누적되는 요일인데, 저녁 늦게 강의를 해도 정서적으로 평안해집니다. 집사람도 시 공부를 좋아하여 휴일 날 문학기행을 가는 일에도 합의를 잘됩니다. 여가 활동을 함께 면니 불필요한 충돌이 적어진답니다.

임기 동안 회원간의 소통이 원활한 문화원,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문화원은 회원과 이사, 그리고 원장, 부원장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회원의 움직임이 없는 단체는 설립목적이 아무리 좋다해도 의미 깊은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첫 번째 운영방침은 문화원의 움직임을 회원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저의 임기는 1년 8개월입니다. 기본 임기 4년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사용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1년 8개월의 임기동안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현재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많은 이사님이 움직이고, 이사님보다 더 많은 회원

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강한 문화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연성문화제 설명회나 평가회, 임시총회 등에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어 고무적입니다. 또한 이사님과 회원님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포천에서 있던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응원단으로 버스 한 대를 빼곡히 채워 다녀왔고, 어르신문화교류프로그램으로 정선에 일박 이일의 일정에도 많은 회원이 참여하였고, 11월 15일의 '정조대왕 발자취를 따라서' 문화탐방 역시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한 단체 움직임 외에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화원의 공지사항을 전체 회원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으며, 계간 소식지를 발간하여 회원님들에게 문화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전체 200여명의 회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저의 임기는 물론, 앞으로 문화원의 사업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원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문화원 전 회원이 시민의 문화적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을 깊이 이해하는 회원들, 문화적 혜택을 나누기 위한 봉사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실 있는 문화원의 활동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문화원의 목적을 공유하는 회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문화봉사를 지향하는 문화원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문화원장과 사무국이 앞장선다면,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뜻 깊은 문화사업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시민의 욕구가 없다 하여도,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전통민속의 발굴과 보존 활동 등은 시민들이 필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묵묵히 일하면서 어제의 해안이 내일의 삶을 키운다는 신조 아래 문화원 활동을 한다면, 어느 지체보다 문화원의 활동을 필요로 하고 문화원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는 시흥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시민들이 문화원이 있는지 없는지, 문화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문화원에 어떤 기대를 걸고 채찍질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지경입니다. 정말 저희 200여 회원들이 각고의 반성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흥 문화원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시흥시는 시흥군에서 여섯 개의 시를 독립시키고 남은 지역이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조선조에는 인천부와 안산군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으로 갯골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지역 통합의 숙제를 지닌 곳입니다. 또한 염전지를 매립하여 만든 공단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서 동농복합으로 미래를 꾸려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시흥 땅과 그 땅에 오랜 세월 살아온 이들이 지닌 덕목을 살려서 시흥의 정신, 시흥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체화하여 시흥을 고향으로 자라는 청소년에게 전승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그러한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펼쳐나가는 시흥문화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지역의 자랑스러운 면이 있다면 문화원에서 그를 표방해야 할 것이고, 한 지역에 부끄러운 역사문화가 있다면 문화원에서 그러한 점을 드러내어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문화원은 지역 내 문화생활의 총체적 책임 의식을 지닌 단단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과 회원들 모두가 문화 봉사에 투철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원은 독립된 원사에서, 지역의 무형문화를 전수하는 기능을 이끌고, 전통문화의 발굴 및 전승에 있어 중심 위치에서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문화, 지역문화 교육, 인문정신의 구현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글. 이현우

- 안산문화원 사무국장(1990 ~ 현재)
- 안산향토사연구소 전문위원(현)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현)
- 안산시지명위원회 지명위원(현)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가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울러 지역문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문화 창달’ 또는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의 진흥’ 등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제목을 붙여 지방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필자가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문화일꾼을 자처하며 24년을 근무해 오면서 매년 한 두번씩의 연수교육 때마다 수없이 들어 온 강의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목적은 같다고 하여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성이 틀리며 규모도 다르다. 각 문화원의 건물규모, 인적자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로 인한 예산의 규모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229개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이 같은 강의를 듣거나 논문을 접하고 나서 실감하는 비중이 다르기 마련이다. 어떤 문화원에서는 공허한 이론으로만 들릴 수 있고 어떤 문화원에서는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문화

원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시골의 문화원에서는 꿈도 꾸기 힘들다는 불만도 나온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때문에 오늘 필자는 사전적 의미의 낱말풀이나 이론을 위한 이론의 문장구성이 아닌 그동안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

시흥시와 안산시가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위치가 거의 같고 도시의 성격도 흡사하기 때문에 문화원의 운영면에서도 동질성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진부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경험에 의한 실감성을 공유하는 소견을 펼치고자 한다.

II.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모습

1. 시흥과 안산의 지역문화

2001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개최한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제11차 연수회에서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정행학부의 이성근 교수는 지역문화의 개념을 공동적인 요소로 연계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전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유산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 미래창조적인 예술문화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이 외부지역과 구분되듯이, 지역문화 역시 지역적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한지역과 다른지역을 특징짓는 관습의 덩어리라고 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의 전체를 지역문화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접한 지역에서, 안산시와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안산에만 있고 시흥에만 있는 전통문화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면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전통민속문화인 군자봉성황제와 안산의 잣머리성황제가 무엇이 다른가? 안산의 잣머리성황제와 화성시 우음도의 성황제는 또 무엇이 다른가. 굳이 따지어 본다면 구비전승되는 설화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경순왕과 서희장군, 경순왕의 마지막 비, 경순왕의 마지막 비의 친정어머니, 경순왕 비의 동생 등등 설화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구성과 행적이 조금씩 다를 뿐 경기도당국의 맥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농요도 구분할 수 없으며 풍물가락도 같은 웃다리풍물이다.

생활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같은 생활문화이다. 공연예술문화 역시 출연하는 예술인들이 다른 뿐이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배후의 성장력으로 있다는 것도 같으며,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 원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도 같고 시

화호에 인접해 있다는 점도 같다. 그래도 우리는 지역문화창달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얼마나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는가. 우리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개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욕이 많은가 적은가, 지역문화를 문화적 복지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어느 시가 많은가 적은가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각 시의 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어떠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도 다르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함께 정 신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문화부문의 발전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50%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문화예술행사의 70%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체도서 95%가 서울에서 출판된다는 통계도 있었다 때문에 1970년 까지만 해도 수도권에는 지방문화원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으며 설사 내준다 하더라도 그 설립요건이 무척 까다로워 수도권에서 지방문화원 허가를 낸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1980 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문화의 소중함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극도로 높아졌다. 1994

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경쟁적으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의 대도시에서도 각 구별로 문화원이 설립 되기까지 이르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231개 시·군·구중에 229개의 문화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지난 2001년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지역문화 중흥을 천명하면서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가치성이 재발견 되기 시작하였다.

2.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갖춰야 할 조건

1) 문화원장의 신념과 정치적 중립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문화원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지역문화창달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원장과 이에 협력하는 임원들이 문화원 발전의 중심이다. 무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문화원에 헌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책임과 명예를 동시에 지고 가는 문화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문화원장들에게는 존경이 따르고 있게 마련이다. 다만 정당소속의 정치인이거나 정치인 출신이 배제되어야 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필연적으로 반대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칫 정치관이 되기 쉬우며 정치적 영향을 받는 문화원치고 일시적 발전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낙후된 문화원으로 전락하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8년의 재임동안 국회의원 공천신청 두번, 시장

공천신청 두 번, 도합 네번의 공천신청을 하는 문화원장이 있었다. 결과는 단 한번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들만 늘어났다. 경쟁자였던 정치인이 자치단체장에 되면 그 보복 역시도 대단해서 그 문화원은 그 원장이 재임하던 8년동안 내내 침체되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 원장 역시 시단위 행사장에서 앞줄은 커녕 맨 뒷줄로 쫓겨 나서 앉는 수모를 겪는 것을 보았다. 물론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원 정관에서 원장의 정치활동을 막고는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문화원장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사무국장의 고용보장

사무국장은 문화원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실무책임자이다. 전국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3년 계약적인 경우가 많고 정년보장적인 경우도 있다. 일부 문화원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4년 계약직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치단체장 측근이 자동으로 임명되고 해촉되고 있다. 사무국장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천직으로 삼아 혼신을 다해 문화원일에 전념할 수는 없다. 꽤 여러 곳에서는 정치인의 낙하산으로 내려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무국장들도 보았다.

이들에게는 책임의식도 없고 의욕도 없으며 단체장 눈도장 찍는데만 전전하다가 시의원, 도의원 공천장 바라보면서 떠나고 만다. 그러한 사무국장들이 근무하는 문화원이 발전될 수 없는건 당연한 일이다. 정년이 보장되어 20년, 30년 근무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것도 사실이다. 개인의 생계만을 위해 마르고 닳도록 실무책임자로 일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경륜보다는 타성에 젖어 나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정도 주기를 두고 순환보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사무국장들이 옮겨갈 자리가 없다. 문화원이 문화재단, 박물관, 문예회관 등과 보직이 순환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추상적이 이론에 불과하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 각종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전공외에도 팔망미인, 만물박사가 되어 머릿속에는 그 지역의 역사책 전부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각종 행사의 기획전문가 이어야 한다. 시대에 뒤 떨어짐 없이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장과 문화원 사무국장은 목을수룩 맛이난다'는 속담에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3) 문화원사의 건립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사업의 전개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이 확보 돼야 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 요건이다. 안산시의 경우 1984년부터 문화원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가 1988년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요건에 해당하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등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기준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도 시 소유의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시설을 무상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필자가 사무국장으로서 취임하던 1990년에는 문화원은 10제곱미터의 반지하 사무실이 전부였다. 1991년 전국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고 나서야 올림픽기념관에 70제곱미터의 사무실과 230제곱미터의 문화사랑방 시설을 갖추 수가 있었다. 그 후 2005년에 8,250제곱미터의 대지에 2,068제곱미터의 3층 건물과 102.3제곱미터의 경기지역 전통초가를 비롯하여 3개의 부속건물을 갖춘 문화원사를 갖추면서 비로서 제대로 된 시설요건을 갖추고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인근 시흥문화원의 경우 1996년 12월 설립인가되어 1997년 대야동 구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능곡동 구·연성동 사무소에 원사를 마련하였는데, 당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안산문화

원에서는 무척이나 이를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문화원 임원들의 의욕과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없으면 원사건립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시장과 공천싸움을 하던 문화원장을 곱게 볼리 없는 상황에서 원사건립은 꿈도 꾸기 힘들었다. 단독원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어련히 문화원사 안 지어줄까봐 그러느냐' 같은 얘기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러던 중 2002년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비 2억 8천만원과 도비 2억 8천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원장을 싫어하던 단체장은 이를 외면했고 문화원장이 바뀌어도 못 본척했다. 그러던 중 다행히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역문화발전에 지방문화원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 새로운 단체장의 도움으로 44억원을 들여 문화원에서 수집했던 향토유물을 전시하는 안산향토사박물관까지 갖춘 원사를 건립하였다.

한 때는 안산문화원보다 규모가 훨씬 큰 시흥문화원이 건립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차질이 좀 생긴 것으로 안다. 빠른 시일에 건립되어 시흥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 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 시흥문화원 임원들의 강한 의지와 지역국회의원의 힘을 빌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시흥시 당국과

시흥시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4)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의 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 육성등) 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동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동법 제19조(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1996년 구리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중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원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내용과 또한 자치단체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례의 해석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는 하나 극

소수에 불과하다. 전북 익산시는 2000년에, 안산시는 2005년에, 군포시는 2011년에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양시는 이를 보완한 안양시문화원사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였다. 안산시문화원사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위탁관리) 제2항에는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안산문화원사 관리·위탁 협약서 제10조(운영요원) 제2항에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에 상응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사무국장을 포함한 문화원 직원 5명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 2명 등 7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과 원사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냉난방비, 기계설비 유지비를 포함한 건물 유지비 등의 예산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원사를 신축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자문을 구해올 때 나는 안양문화원의 조례를 모델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이의 시행령에 자치단체의 문화원 지원·육성조례의 제정이 더해진다면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시 사업비 외에 운영비 전액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함이 좋을 것으

로 생각한다.

5) 회원조직의 강화

기본적으로 독립법인의 형태인 문화원에서 회원 구조는 문화원 조직의 초석이 된다. 많은 회원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문화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할 때 문화원은 그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조직으로 인식 받게 된다. 한 때 필자는 안산시 인구의 1%를 문화원 회원으로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회원 수를 늘리는데만 급급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인구 60만일 때 1%를 달성하려면 6천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무리를 하면서 까지 회원 수를 늘려 1천5백여명까지 회원확보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회원들의 관리를 위해 회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를 했지만 전담직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다. 문화원 이사들이 앞장서서 이사 1인당 수십 명씩의 회원가입서를 받아오기도 했지만 이들중 30%정도만 회비를 내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회원들로 전락해 갔다. 우편물 한번 보내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특히 정관개정이나 문화원장 선출시에는 대의원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이 무효이며 회비를 내는 회원들 전체가 참석한 총회에서만 정관개정과 원장선출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에는 과감하게 회

원정리도 해야 했다. 진성회원으로 불리는 회비 잘 내고 행사에 참석 잘하는 정예 회원으로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지로로 회비를 받던 방식을 변경해서 CMS제도를 도입하여 이사진들과 운영위원들의 회비가 자동이체 되게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였다. 현재는 336명(원장1,부원장3,이사47,운영위원85,일반회원200)으로 회원수가 줄어들었으나 회비수입은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어 연간 5천여만원이 된다. 2013년도 문화원 총예산 8억3백만원중 자체수입금(회비,수강료,찬조금,이월금)은 1억9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정도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문화원 회원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 보다는 진성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Ⅲ.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1. 문화학교 운영과 지역 예술인들과의 갈등해소

안산의 경우 1992년 풍물놀이외 6개 과목으로 문화학교를 개설했는데, 처음부터 지역예술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됐었다. 서양화, 한국화, 민요, 서예, 꽃꽂이 등이 처음 개설했던 과목인데 지역예술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한 강좌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문화원에서 하면 안된다

는 논리였다. 단체장까지 찾아가서 따져 묻기도 하였지만, 문화원에서 시의 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물러섰다. 지역예술단체장들을 설득하여 문화원에서는 마당을 마련하여 장을 열어주고 강사는 지역 예술인들만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2013년 현재는 31개 강좌에 36개 교실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시에서 보조받는 예산은 연간 9백만원 뿐이고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지급하는 강사책임제로 년 1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중 90%인 9천만원을 강사료로 지출하고 있다.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예술의 전당, 각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강좌를 우선으로 하고 일부 생활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강좌는 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문화원은 몇 개월 과정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전문성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사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의 수준 높은 강좌로 타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강좌와 차별성을 두고 있고 실제로 각 동주민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강사들 상당수가 안산문화학교 수료증을 받은 문화원 수강생 출신들이다.

지역문화예술행사에서 문화원과 지역예술인들의 갈등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제 행사는 전통문화행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술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부딪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듣는다. 나만이 해야하고 너는 하면 안된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어떠한 법률근거도 없이 문화원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모함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국의 문화원 사무국장 모임 때 심심치 않게 듣는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원 사업에는 그러한 규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면 얼마전 국악협회에서 시의회 의원과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민요단은 국악협회 고유업무이니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지역 국악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국악협회에는 보수를 받는 상근직원 한명 없어 행정력이 없는데도 단순히 시 보조금을 받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이겠으나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선의의 경쟁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좋은 방책이라고 설득하는 도리 밖에 없었다.

문화원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음악협회 회원을 지휘자로 쓰고, 국악강좌를 열고 국악공연단을 운영하면서 강사는 국악협회 사람을 쓰며 조율해

나가는 것이 상부상조의 길임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원에서는 마당을 열어주고 예술행위는 지역예술인들이 펼치는 상호 협력관계로 갈등을 해소해 보고자 하나 각 지역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향토사 연구는 문화원의 고유업무이다.

향토사 연구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기초적인 향토사료(자료)를 조사발굴하고 이를 연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문화원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의 학예직 전문위원을 두고 향토사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문화원과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문화원의 활동과 역할이 미미하거나, 불신을 받고 있거나 하여 공무원들로부터 미덥지 않은 문화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향토유적을 비롯한 문화재의 기본적인 조사사업과 향토유물의 수집과 보존 관리하는 사업, 시사편찬을 비롯하여 마을지의 편찬사업 등의 사업은 문화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안산문화원에서는 20여년동안 꾸준

히 유물수집사업을 하여 현재 2,5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1종 전문박물관인 안산향토사박물관을 문화원내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대부도향리지, 반월동향리지 등 마을지 편찬과 10년주기로 두 번에 걸쳐 안산시사편찬사업을 시 위탁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개소의 향토유적을 발굴하여 향토유적 지정 건의를 하여 모두 지정되었으며 금년에는 비지정문화재 조사사업을 시 위탁사업으로 수행중에 있다. 조사된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4곳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향토사연구소인데 소장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은 무보수에 비상근직이다. 위탁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수당과 원고료 등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향토사연구소 외에 지역학연구소(원)가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부설단체로 두는 경우도 있고 문화원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문화원부설이 아닌 경우는 각 대학의 AMP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향토사연구소 보다 지명을 붙인 ○○학연구원이 좀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형태야 어찌 되었든 문화원 부설의 향토사연구소 또는 향토문화연구소, ○○학연구원

등이 지역의 역사문화연구를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면 그러한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문화원 표준정관에서 의 문화원 사업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인적구성과 시설이 각기 다르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므로 원론적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근거한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열거해 보고 2007년에 제정된 문화비전선언문을 통해 문화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원 표준정관에서의 문화원 사업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에 대한 사업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사업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사업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 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IV. 맺음말

10여년 전 우리나라의 문화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공민관 여러곳을 견학하고 온 적이 있었다. 주민들이 스스로 없이 찾아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 문화강좌를 비롯하여 도서관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았다. 또한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관이 있었고, 각 지역의 전통문화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데 필요한 소품창고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공민관은 수영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을 보았었다.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모든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공민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숫자로 치면 우리나라의 시단위 자치단체에 동사무소 숫자만큼 공민관의 숫자

가 많으며 공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50%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에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며 나머지 50%는 자원봉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든 택시를 타고 '그 지역의 문화원을 갑시다' 라고 말해보자 과연 택시 운전사가 그 지역의 문화원 위치를 알고 있는가를 보면 그 지역의 지방문화원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안산시에서 지금은 택시를 타고 '안산문화원 갑시다'라고 얘기 했을 때 안산문화원을 모르는 택시기사는 신입사원을 빼고는 거의 없을 정도이며, 문화원 위치를 알리기 위한 도로이정표도 6군데를 안산시에서 설치해주었다. 물론 문화원사가 없던 2005년 이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문화원사를 건립하고서도 5년 이상이지나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흥시에 서 문화원이 시흥시의 문화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문화원 임원들이 함께 힘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전국 제일의 시흥문화원사가 건립되고 그 시설을 바탕으로 시흥의 지역문화가 더욱 융성해지라 생각한다. (完)

정조대왕과 시흥

-1797년 8월 정조대왕 행행(幸行)-

글. 이병권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출처: 네이트 한국학(한국학중앙연구원)

정조

조선 22대 왕 정조(1752, 영조 28~1800, 정조 24)는 이름은 성(祘),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 영조의 둘째아들인 장헌세자(莊獻世子, 일명 思悼世子)와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비(妃)는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김시묵(金時默)의 딸 효의왕후(孝懿王后)이다. 1759년(영조35)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진종眞宗)의 후사(後嗣)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1775년에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해 영조가 죽자 25세로 왕위에 올랐는데, 생부인 사도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또한 세손으로 갖은 위험 속에서 즉위하였다. 즉위하고 곧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해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우문지치(右文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之治)와 '작성지화(作成之化)'를 규장각의 2대 명분으로 내세워 본격적인 문화정치를 추진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정조대는 조선시대의 문예부흥기이다. 병자호란 이후 17세기 후반의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조선중화의식(朝鮮中華意識), 이에 따른 북벌론(北伐論), 예치(禮治)의 실현 등, 조선문화의 독자적 발전에 있었다. 이러한 조선 후기 우리 고유문화 경향은 18세기 전반에 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숙종 후반 이후 영조, 정조대까지 우리나라 산천과 풍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문학과 예술, 화풍이 유행하던 시대가 바로 진경문화로 진경산수(眞景山水), 동국진체(東國眞體)가 대표적이다. 바로 이러한 축적 위에 정조의 학문화정책의

추진과 선진문화인 청 건륭문화를 받아들여 조선 후기의 문예부흥과 중흥을 이끌었다.

정조는 이밖에도 『일성록(日省錄)』의 편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 장용영(壯勇營)의 설치,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의 폐지, 천세력(千歲曆)의 제정 및 보급, 신해통공(辛亥通共, 1791년 정조15 육의전 이외의 시전(市廛)에 대한 전매 특권을 폐지)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당시 정치문제로 대두된 서학(西學)에 대해 정학(正學)의 진흥만이 서학의 만연을 막는 길이라는 원칙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아버지를 장헌세자로 추존하는 한편, (고종 때 장조로 추존됨) 양주 배봉산(拜峰山) 아래에 있던 묘를 수원 화산(花山)으로 이장해 현릉원을

만들고, 용주사(龍珠寺)를 세워 원찰(願刹)로 삼았다. 이렇게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도를 수원에 신도시 화성축성으로 완수하였다. 옛 수원 관아가 있던 화산에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대신 팔달산 기슭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고 어머니의 회갑연을 화성행궁에서 열었다. 노론권신(權臣)들의 기반이 강한 서울에서 벗어나 신도시 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적 구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조선시대 27명의 왕 가운데 유일하게 『홍재전서(弘齋全書)』라는 문집을 남겼다. 1800년 6월에 종기가 심해져 49세의 나이로 붕어(崩御)하고 유언대로 용릉 동쪽 아래 묻혔다가 그의 비 효의왕후가 돌아가자(1821년) 용릉 서쪽 언덕에 합장되었다.(건릉健陵) 시호는 문성무열성인 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1900년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가 되었다.

정조 행행은 사도세자를 찾는 원행

행행(行幸)은 임금의 궁궐 밖으로 거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온양 온천을 자주 찾았던 세종의 행차(行次)나 선대왕이나 왕후의 능침을 찾는 능행(陵幸) 등이 모두 행행이다. 특히 정조는 능행을 많이 나갔는데 정조 이전 국왕들은 능행차를 단순히 행차라고 표현한 거와 달리 행행

(幸行)으로 규정했다. 바로 국왕의 행차가 백성들로부터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즉위 후 능행을 총 66회를 나갔다. 주로 태조와 숙종, 영조의 능을 찾았다. 이는 선왕에 대한 효성의 표현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의미였다. 또한 전체 능행의 절반을 차지하는 31회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園寢)인 영우원(永祐園)과 현릉원(顯隆園)을 찾았는데, 이는 당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 사도세자를 신원하고 자신의 혈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장헌세자의 탄신일인 1월 21일에 직접 작헌례를 드린다는 점과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1~2월 봄철 원행을 원칙으로 하였다. 수원의 화산에 위치한 현릉원을 찾는 원행은 현릉원을 수원으로 옮긴 1789년 이후, 1797년에만 1월과 8월 두 차례 왕래했을 뿐, 매년 한 번씩 모두 열세 번 수원에 행차하였다. 이 가운데 제10차 능행과 원행이 시흥지역을 통과한 1797년 8월 행행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조행행이 특히 단 1회에 불과했지만 1797년 8월에 단행된 행행은 우리 시흥지역(현 시흥시 이하 '시흥지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797년 8월 행행

1797년 행행은 두 차례 있었다. 먼저 1796년 9월 화성이 완공되고 그에 따라 화성낙성연 겸, 김

포 장릉(章陵)을 경유한 행행이 추진되었는데 대신들의 만류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듬해 1월 29일 화성축성에 대한 순행을 목적으로 수원별로를 이용하여 2박 3일간의 행행이 이루어졌다.(각주 11 참조) 그리고 이례적으로 바로 우리 시흥지역이 노선이 되는 그 해 8월 15일부터 김포 장릉을 거쳐 현릉원을 참배하는 4박 5일의 긴 능행차가 이루어졌다. 특히 장릉을 거쳐 내려간 행행은 예정에 없었으나 민회빈 강빈이 잠들어 있는 영회원(永懷園)을 찾고 마지막으로 수원 화산에 현릉원을 참배하기까지 내려가는 데만 총 3일의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된 행행이었다.



정조대왕 능행로 출처 : 수원과 함께하는 능행차길 체험순례(www.sulye.co.kr/beta/history4.html)

『정조실록』에 나타난 1797년 8월 행행을 보면 행행 전날 창덕궁 규장각 이문원에서 재숙하고 행행을 나섰다. 그리고 장릉과 민회빈 묘에 대해서

친히 작헌례를 올리고, 행행로 주변 지역의 백성(父老)들에게 고통을 물어 경기 감사 입회하에 당해 지방관에게 묻고, 하명하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 아울러 각 공신과 서원 등에 제사를 명하는데 시흥지역에서도 하연(향토유적 3호), 김재로, 김치인(향토유적 1호), 구종직, 한준겸(경기도 기념물 163호), 장유(향토유적 2호), 장선징(장유子) 묘에 치제(致祭)를 하고 있다. 이들의 묘는 현재 경기도 및 시흥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정조실록』를 토대로 당시 행행경로를 지금의 지리로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로 표시)

기존 길(창덕궁 - 관왕묘 - 노량진 배다리 - 양천행궁 - 장릉 - 김포행궁 - 부평행궁 - 새로간 길 [부평역(1호선)으로 남하 우회하여 인천광역시 십정2동 방향(동암역-1호선) - 간석오거리 옛 한양, 인천 길(현 수인로 42번) 합류 - 상아산 김재로 묘 지나 소래산 앞길(하연 묘 계란마을 앞길) - 신천사거리 - 중림역(현 과림동 중림, 한양, 인천 간 길의 중간 역)에서 목감천을 넘어(현 범안로) - 노온사동 영회원을 들리고 나와 - 중림역도(현 금오로 397번)로 남하 - 무지내 감조개 넘어 수인로 합류(현 금이사거리), 남하 - 안산행궁 - 수인로 - 반월을 지나 - 수원 관문 밖 5리(약 1.9km) 지점 옛 서문로(화성 서측)로 남하) - 기존 필로로 합류 - 현릉원)

* 중림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한양과 안산군을 잇는 중림역도(重林驛道)에 딸린 7개소 경신(慶新, 인천), 석곡(石谷, 안산) 등 속역(屬驛) 중의 하나로 나오며 역승(驛丞, 종9품) 1인씩 배치했다고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부 역원조와 『여지도서』 인천도호부 역원조에 따르면 부의 서쪽 33리에 소재하며 대마(大馬)2필, 기마(騎馬)3필, 복마(卜馬)3필, 노비55명, 역리13명(노奴로 충원)이라고 한다.

1797년 8월 행행의 목적

화성축성이 10년 예정의 공기로 공사를 시작하여 1796년 8월 삼분의 일로 단축하여 화성성역이 일단 완료되었다. 여기에 고무된 정조는 9월 김포의 장릉(章陵)을 거쳐 현릉원에 행차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며칠 후 대신의 청을 받아들여 석연치 않게 중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조가 불참한 가운데 10월 16일 화성낙성엔은 치러졌다.

김포의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 1580~1619)과 그 부인 구씨(具氏, 인원왕후仁獻王后, 1578~1626)의 합장릉이다. 인조반정 이후 정원군은 대원군이 되고, 인조 5년(1627) 원종(元宗)으로 추존되어 왕의 위호를 갖으며 묘소도 왕릉의 규모를 갖추었다.

인조가 그 생부의 위호와 유택을 원종과 장릉으로 추존하였던 것을 모범으로, 정조는 사도세자와 그 유택 현릉원에 대하여 장차 유사한 추존의 조

치를 취하고자 의도하였던 것 같다. 현릉원을 위하여 화성을 축조한다고 하였던 정조가 화성낙성엔에 유독 장릉을 경유하여 가고자 하였던 것도 이런 의도에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조의 의도는 장릉을 경유한 화성행차가 무산됨으로써 일단의 좌절을 겪게 된다. 이후 장릉을 경유한 화성행차는 다음해 8월 이글에서 다루고 있는 행행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인조가 원종에게 하였던 류의 추존을 이루어내는 못하였다. 장차 갑자년(1804년)에 세자에게 전위하여 그를 통하여 이루려하던 일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른바 '갑자년 구상'으로 정조가 왕세자(순조)가 15세가 되는 갑자년(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앉아 수원으로 이거해 원침인 현릉원을 지키며 왕권을 보위하려는 계획이다.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新豐樓)의 '신평'이 의미가 한나라 고조의 고사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정조가 말년을 수원의 화성행궁에서 지낼 계획을 드러낸다. 아울러 행궁 주요 전각인 노래당(老來堂)도 '원래 늙는 것은 운명에 맡기고 편안히 거처하면 그곳이 고향(老來又委命 安處卽爲鄉)'이라는 백거이(白居易)의 시(詩)에서 나온 '노래(老來)'라는 말이므로 이곳에서 늙어 안식처로 삼겠다는 정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흥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축제 연성문화제

글. 이병권



제22회 연성문화제는 ‘연의 어울림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시흥시 위생과와 한국예총 시흥지부, 미술협회, 연예인협회 등, 시흥시와 여러 단체들이 연합하여 시흥시생명농업기술센터 연꽃테마파크에서 2013년 7월 26(금)~28일(일)의 일정으로 3일간 치러졌다.

특히 ‘연’이라는 시흥시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역사성에서 ‘연의 어울림 한마당’은 그 자체로 연성문화제였다. 연성문화제는 시흥시 출범 이전 금천문화제를 계승하여 1989년 시흥시가 시로 승격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여 ‘시민의 날’ 행사로 연성문화제로 고쳐서 개최되었다. 이후로 지금까지 구제역과 동 등으로 개최하지 못한 해도 있었으나 거의 매년 개최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성문화제는 시흥시에서 지정한 3대 축제(갯골축제, 물왕예술제) 중 하나로 우리 시흥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강희맹이란 인물과 관계가 깊다.

강희맹은 1463년(세조9) 8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남경의 전당지에서 연꽃씨(전당홍련)을 채취해 귀국한 후, 현 시흥시 하중동 관곡지(시흥향토 유적8호)에 시험 재배해 성공하여 그 연꽃이 차츰 주변으로 퍼져 이를 계기로 안산군의 별호를 ‘연성(蓮城)’이라 불리게 되었다. (연지사적 참조)는 고사(古事)의 주인공이다. 이러한 연지고사에 따라 이후 지역의 유명 성씨의 연합 족보 등에 ‘연성’을 따서 연성성보가 편찬되었고 일제시대 한사회인 연성음사 등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연성’이 사용되었다. 특히 ‘연성’은 1797년 정조께서 어제로 낸 시제에도 나오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 별칭이 되었고 현재 연성동, 연성초등학교, 연성중학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성’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름이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연성문화제로 꽃피울 수 있었다.

올해 22회를 맞는 연성문화제는 위의 역사성과 함께 시흥문화원이 준비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갈채를 받았다.

그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날(26일) 연성문화제가 가지는 역사성을 살리고자 연성문화제의 개막선언으로 그 옛날 강희맹의 연지고사를 재현한 '강희맹 사신단 행렬'로 연성문화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지역의 전통문화축제로서 우리 지역 애환과 삶이 녹아있는 시흥의 소리, 민요 공연을 하며 시흥의 농어촌의 문화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시립 전통예술단이 '연향풍류'라는 창작기획공연을 선보이며 연을 주제로 하여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현대적 계승을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실연하였다. 이는 과거의 관곡지와 오늘의 연꽃테마파크를 잇는, 시흥의 어제와 오늘을 풍류라는 멋으로 연을 느끼도록 만든 아름다운 무대였으며,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27일 공연에서는 천년을 이어온 전통문화축제이자 큰 의례인 군자봉성황제를 무대공연으로 처음 선보였다. 특히 군자봉성황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의레이지만 그간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그러나 군자봉성황제보존회와 당주 고현희의 노력으로 처음 무대공연으로 기획하여 선보이면서 군자봉성황제가 일반 시민들과 부담 없이 어울리게 되는 큰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시도로 많은 시민들이 군자봉성황

제를 알게 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경기도무형문화재로 등재하는 노력과 우리의 일상과 많이 동떨어지고 먼 느낌을 가지는 전통의례가 무대공연으로도 손색없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한편, 시흥시민이 모두가 문화가족이라는 의미에서 2013년 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으로 '한여름밤의 문화콘서트'를 열었다.(26일) 한여름밤의 문화콘서트는 지역내 활동하는 켜즈연주가 정재우 등 멋진 무대공연과 함께 중요 무형문화재 서도소리 이수자인 명창 박일엽이 켜즈반주를 통한 아리랑을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적삼의 부드럽게 날림이 아름다웠던 살풀이 전경아의 춤사위 등이 어울려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함께한 아름다운 한여름밤의 향연이었다. 따라서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남아서 아름다운 무대공연을 한껏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메인의 중요한 기획 공연과 함께 한국 전통의 가락을 느낄 수 있는 안숙선 명창 공연을 21회와 마찬가지로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우리네 전통가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수준 높은 전통공연을 향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통복장체험, 다도체험, 붓글씨, 연자목걸이 만들기, 한지공예체험, 짚풀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가족단위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함께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서 수준 높은 전통문화공연과 함께 진정한 전통문화축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삼색(三色), 문화원 후원의 밤

글. 연구자

전국의 시·군·자치구마다 대개 지역 명칭을 앞에 단 문화원이 있다.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설립되고 있다. 지방문화원에 대해 잠깐 소개해보기로 하겠다.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부터 전통문화 수호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자생단체로 활동하기 시작하다가 1962년 8월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며 지역문화사업자로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다. 그러다 1994년에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므로 시·군·자치구의 각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특별 법인으로 재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향토)문화 조사·연구사업과 지역축제 개발·육성사업, 지역주민 문화의식 함양사업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향토사료의 수집·보존·발표,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지역주민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사업과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 관광 및 문화산업 창출사업과 고령화 사회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 문화학교를 통한 사회교육, 다문화사회 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과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인간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고 말할 수 있겠다.

2013년 1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문화원과 제주도를 포함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전국 회원 수는 20만 여명에 달한다. 또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등과 같이 시 및 도별 연합회로 묶음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졌으니 경기도 내 31개 문화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시흥문화원은 30번째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연 곳이 의왕문화원이다.

시흥문화원은 1996년 12월 인가를 받아 이듬해 9월 개원하여 위와 같은 설립목적과 역할을 위해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하였다. 그 성과와 인정에 대하여는 당대에 평가되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듯이 공공적 성격이 짙은 지방문화원사업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 저녁, 시흥시 향토유적 8호인 관곡지에서 시흥문화원 주최로 가을맞이 문화콘서트가 열렸다. 더하여 '문화원 후원의 밤'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날 행사는 '가을맞이 문화콘서트'와 '문화원 후원의 밤' 외에 의미를 하나 더 둘 수 있다. 앞서 6월, 개원 이래 시흥문화원으로서의 처음 치룬 경선을 통해 신임 문화원장이 당선되었다.

사전 공식적인 취임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렸으나 어떤 식으로든 인사하는 형식은 필요한 부분이였다.

문화원 자체행사로서 순수하게 지원금 없이 준비하는 삼색(三色)의 어울림인 셈이다. 이 같은 행사의 어려움은 자칫하면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양새가 되어버릴 가능성에 있다. 그러기에 더욱 치밀하고 정성어린 접근을 필요로 한다. 신임 원장과 임원, 직원들 모두 이러한 점을 명심하며 이 세 가지 의미가 적절히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기획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나 준비된 예산 없이,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변화하는 시흥문화원의 얼굴만으로 해내야 하는 행사인 동시에 앞서 말한 세 가지 취지도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먼저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화콘서트'여야 한다. 공연무대에 오르는 출연자들의 섭외는 모두 재능기부를 받았다. 건강하지 못한 문화원 자체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속내도 있으니 자체경비 지출은 처음부터 배제한다. 그리고 신임원장을 축하하고 막중한 책임을 격려하는 따뜻한 가족 같은 마음이 어울려야 한다.

공연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무대와 음향, 의자와 탁자 등의 집기들 그리고 공연 후 간단한 뒤풀이 음식을 모두 신임원장이 부담하였다. 후원금을 위한 판매 물품도 기증을 받았다. 서예가의 친필이 적힌 합죽선과 서도민요 음반, 그리고 사진작가의 전시 작품을 후원받았다.

야외행사의 성패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심

스러우나 날씨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행사가 다가오면 서는,

- 날씨가 도와줘야하는데...를 주문처럼 외우게 된다.

팔월의 끝자락, 가을의 길목인 행사일 아침에 비가 지나갔다. 오후 되면서 다행히 날씨는 개었다. 시흥시 향토유적 관곡지에 있는 정자 은휴정을 배경으로 앉은 무대는 주위와도 잘 어울려 그림처럼 예뻐다. 준비한 의자 100여개를 채우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전통연희단 꼭두쇠의 길놀이와 판굿을 시작으로 경기도시낭송협회장의 시낭송, 거문고 독주, 재즈와 팝이 어우러진 색소폰 연주, 우리나라 대표 민요 아리랑과 민요가수의 흥에 겨운 가요 무대가 신명나게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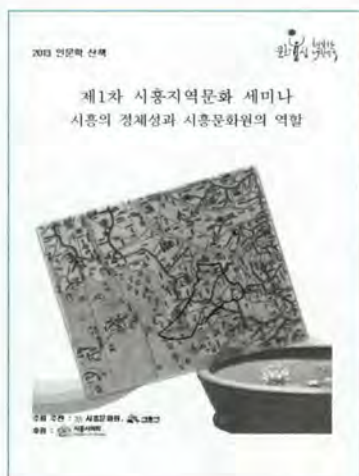
밤이 깊어감에 따라 들뜨고 훈훈해지는 공기가 넓게 퍼졌다. 조명이 없어 불편했던 아쉬움도 카메라 플래시 덕을 보며 즐거운 추억거리로 바뀌었다.

시흥문화원의 또 다른 역사 한 페이지가 채워졌다.



제1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를 마치고

글. 최경애



산문화원 이현우 사무국장, 사한국예총시흥시지부 최찬희 부회장이 했고, 주제는 '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이었다.

1부 첫 순서로 시흥시 향토사료실 김치성 상임위원이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제로 시흥시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나? 삼국시대 매소홀현, 장항구현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시 역사 연혁의 변천과정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우리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를 우리시 연역에 대해 표로 표시해 시대별로 몇 가지로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우리시의 첫 지명을 알 수 있는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문화주간행사로 10월 17일 오후2시에 제1차 시흥지역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발제자는 시흥시 향토사료실 김치성 상임위원, 안

기까지,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시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서로 다른 역사와, 두 번째는 지자체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영역적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에 설정된 구역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며, 셋째는 지자체를 구성하는 영역과, 범위가 작고 다뤄야하는 국면들이 작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있는 관할구역 그리고 지방자치 권한이 국가의 3요소에 대입되어 있고, 자기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하려면 가장 일차적으로 그 지역의 땅과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는 내용으로 오늘날 시흥의 땅과 그 땅을 딛고 선 사람들은 자연경관과 생업환경의 변화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고 적응하고 이겨내면서 오늘날의 우리시를 만들어 왔으며 시흥의 역사를 읽는 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산문화원 이현우 사무국장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문화원이 설립 목적은 같다고 하여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성이 틀리며 규모도 다르다고 설명하며, 지역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 전체를 지역문화로 보고 시

흥과 안산의 다르지 않은 전통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해 군자봉성황제와 잣머리성황제, 공연예술문화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조건으로는 문화원장의 신념, 사무국장의 고용보장 등을 들었으며 시민들의 문화 공간 확보의 중요성으로 시흥문화원 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원이 접하는 위치를 논하고 향후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최찬희 예총 부회장은 21세기는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며, 문화예술의 역할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예술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시흥의 정신'에서 조선전기 시, 서, 화 삼절로 유명한 문신학자인 강희안의 예술정신을 고찰하였고, 시흥의 문화예술 정신과 발전방향에 대해 정체성과 역사적 인물 연구 발굴에 의의를 두었다.

자유토론으로 이어진 2부에서는 어느 지역 보다 문화적 가치가 많은 시흥시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우며 시흥문화원이 그 일에 앞장 서야한다는 내용과 이 땅의 사람들에서는 시흥의 이야기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시의 이야기가 아닌 부분에 공감하고, 서로 인접한 시흥과 안산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며, 우리시의 옛 지명을 알리고 지명표기를 통해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흥시민으로써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등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번 세미나를 통해 시흥의 역사문화와 문화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앞으로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기를 바라며, '시흥시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생각하고 문화원의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로 이어지는 시흥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문화원 주최의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는 오늘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시흥시 전통문화 보존 방안

글. 이재곤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경기향토사협의회 이사
· 서울역사문화포럼 이사
· 계간 글의 세계 편집교문

1. 역사 문화적 배경

면적 135.03km²에 42만명이 넘는 시민이 거주하는 현재의 시흥시는 삼국시대에는 미추홀(彌雛忽)로 널리 알려진 인천지역인 매소홀현(買召忽縣)과 안산지역인 장항구현(獐項口縣)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 때에는 소성현(邵城縣)과 장구군(獐口郡)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 장구군은 안산군(安山郡)이 되었으며 소성현은 경원부(慶源府)가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경원부가 인주(仁州)에서 인천부(仁川府)가 되었다.

당시에 현재의 인천시 북부지역은 인천도호부에 속했으며 남부지역은 안산군에 속하였다. 즉, 과림동 중림역사지(重林驛舍址)가 있었던 지역은 인천부에, 하중동 관곡지(官谷池)가 있었던 지역은 안산군에 속하였다. 그 뒤 1914년 시흥군이 되었으며 1989년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이 합해져 시흥시가 되었다.

그러나 시흥(始興)이라는 지명은 현재 서울 금천

구(衿川區)에서 비롯되었다. 고려 성종(成宗)때 금주(衿州)의 별호를 시흥이라 하였으며 그 뒤 정조(正祖)19년(1795)에 정조가 금천을 시흥이라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아득히 먼 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생활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계수동 일대와 도창동, 매화동 일대에는 타제석기(打製石器)가 수습되었으며, 또 오이도에는 패총(貝塚)유적이 발굴되었는데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과 빗살무늬토기 등 신석기시대 중, 후기에 속하는 유물로 알려져 그 시대 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다.

계수동과 조남동 일대에는 지석묘(支石墓) 외에 무문토기(無文土器)가 수습되었으며 특히 조남동의 지석묘는 탁자식 대형 지석묘이다. 또 금이동에는 관옥(冠玉)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거모동·안현동·군자동 일대에서도 주거지로 추정되는 무문토기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토기(百濟土器)로 추정되는 유물산포지가 안현동과 매화동 일대에서 조사되

어 취락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삼국시대, 즉 백제시대 산성으로 추정되는 군자산성지(君子山城址)가 있는 데, 이곳에서 수습되는 토기편과 와편은 몽촌토성이나 이성산성의 출토유물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백제사(百濟史)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광석동·능곡동·산현동 등 동남부지방에서 인화문토기(印花紋土器)가 발굴되어 당시 당(唐) 나라와의 무역으로 유명했던 당성진(唐城津:남양)과 혈구진(穴口鎭:강화)사이, 곧 선진문물이 수입되던 인근에 있어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문화유적으로 유명한 곳은 방산동 요지(窯址)와 소래산 마애불(磨崖佛)이 있다. 방산동 청자, 백자가마터는 방골(芳谷) 남쪽에 있는 다니(竹院)마을과 다니와 마루미 사이에 있는 방골마을인데, 신라 말에서 고려초기인 9~10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마터는 중국식인 벽돌가마로 만들어졌으며 소량의 백자도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성형(成型)된 청자는 회청색태토(灰青色胎土)에 녹갈색 또는 회녹색유약을 사용하였으며 백자는 밝은 회백색태토를 사용하였다. 대접·접시·회형접시·잔 등 다양한 기종이 만들어 졌으며, 한국식 청자의 대표적인 해무리굽이 발견되지 않아 아직 한국화 되지 않은 청자가마터로 알려진 용인 서리 유적과 함께 경기도 일원에서 발견되는 청자가마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소래산 마애불(蘇萊山 磨崖佛)은 고려시대에 선

각(線刻)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살입상(菩薩立像)인데 14m 크기의 거불(巨佛)이며 선조(線條)의 깊이는 얕으나 전체적으로 균형이 우수하다.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고려초기설과 고려후기설이 있으며 지방토착세력과 후원관계 아래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흥시 관내에는 고려시대 사찰관련 기록이 있으며, 또 거모동·계수동·과림동·능곡동·물왕동·월곶동·장현동 등에서도 도기(陶器)와 기와 등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시흥지방은 중국 동북부와 연결되는 교통로의 인근 지역으로서 중세문화연구에도 중요한 지방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유적으로 주목할 만한 곳은 먼저 하중동에 있는 관곡지(官谷池)로서,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 1424~1483)과 관련된 기록이다. 조선전기 명신(名臣)이며 농학자로 이름이 높은 선생은 세조 9년(1463)에 명(明)나라에 다녀올 때 남경(南京) 전당지(錢塘池)에서 연꽃씨를 채취해 하중동 관곡에 있는 연못(하중동 208)에 재배하여 널리 퍼졌다. 이를 계기로 세조 12년(1467)부터 읍호(邑號;別號)를 연성(蓮城)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현재 연성문화재의 명칭도 이 못에서 연유해 명명된 것이다. 관곡지의 연꽃은 다른 연꽃과는 달리 꽃의 색은 희고 꽃잎은 뽕족하고 담홍색이다.

시흥시는 바닷가에 위치하면서도 지형이 수려하여 역사적인 인물과 많은 문사(文士) 및 종중(宗中)의 묘역(墓域)이 자리하고 있다. 세종때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경재(敬齋) 하연(河演), 선조 때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 1557~1627), 광해군 때 우의정(右議政)을 지냈으며 4대 문장가의 한 분인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고정(古亭) 김치인(金致仁, 1717~1790), 또 고종 때 좌의정을 역임하고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처형을 주장한 순국열사 산재(山齋) 조병세(趙秉世, 1827~1905) 선생 등 여러 묘역(墓域)과 이에 따르는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사우(祠宇)와 재사(齋舍)로는 사육신의 한 분인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 ?~1456)의 사우인 충경사(忠景祠)가 산현동에 있으며 하상동에는 사숙재 강희맹의 재사인 연성재(蓮城齋)가 있고 신천동에는 경재 하연의 재사 및 배향(配享)하는 소산재(蘇山齋) 또는 소산서원(蘇山書院)이 있고 무지내동에는 성종 때 좌찬성(左贊成)을 역임한 백결재(白潔齋) 구종직(丘從直, 1404~1477)의 사당인 안장사(安長祠)가 있으며 군자동에는 영웅대군(永膺大君, 1434~1467)의 재사인 경효재(敬孝齋)가 있고 산현동에는 영평위(鈴平尉) 윤섭(尹燮, 1492~1516, 성종의 딸 정숙옹주의 夫)과 현종 때 우의정을 역임한 동산(東山) 윤지완(尹趾完, 1635~1718)의 위패를 모신 숭모각(崇慕閣)이 있으며, 또 태종 때 정사공신(定社功臣)으로 안성군(安城君)에 봉해진 충숙공(忠肅公) 이숙번(李叔蕃, 1373~1440)의 재실인 영모재(永慕齋)가 있고 미산동에는 창년성씨 좌랑공과 재사인 인현재(仁峴齋)가 있다.

그 밖에도 산현동에는 숙종 때 효자 이상기(李相夔)의 정려판(旌閭板)이 있고 물왕동에는 조선

후기 몇 몇 수령의 선정비(善政碑)가 있으며 과림동에는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三世積善碑)도 있다.

단(壇)과 사지(祠址)로는 조남동의 사직단지(社稷壇址), 수암동 원당골의 우사단지(雩祀壇址), 대야동 소래산 재밧골의 우사단지, 수암동의 여단지(厲壇址), 군자동 군자봉(君子峯) 성황사지(城隍祠址)가 있다.

서해안의 급한 소식을 알리던 고려·조선시대 통신제도였던 봉수대지(烽燧臺址)로는 정왕동 오이도 당봉에 있는 오질애(吾叱哀) 봉수대지와 정왕동 정왕산(봉화산·봉우재산) 봉수대지가 있다.

역·원지(驛·院址)로는 장하동의 쌍록원지(雙鹿院址)를 비롯해서 과림동의 중림역사지(重林驛舍址), 거모동 도일 석곡역사지(石谷驛舍址), 월곶동 달원역사지, 정왕동 평안촌 군자역사지(君子驛舍址)가 있다.

정자터로는 수암동 망해정지(望海亭址)를 비롯해서 평근루지(平近樓址), 화정동 고송정지(枯松亭址), 하중동 은휴정지(恩休亭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고려 현종(顯宗)의 비(妃)인 원성왕후(元成王后), 조선 효종(孝宗)의 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생가지(生家址)와 관아지(官衙址) 및 사지(寺址), 그리고 수암동의 비립동(碑立洞), 거모동 도일(石谷) 3.1만세운동 발생지가 있다. 또 군자봉성 황제, 포동 새우개 당제(堂祭), 월미두레풍물놀이, 어업요(漁業謠) 의식요(儀式謠) 등 토속요(土俗謠)인 향토민요도 전해온다.

특히 봉수대지·역사지(驛舍址) 등 전통적인 군사 통신시설은 역대 우리나라가 내외의 환란을 겪

은 호국의 현장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선인(先人)들은 정충보국(精忠報國)의 일념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였으며 그 분들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와 후손들에 의해 정충각(旌忠閣)과 사우(祠宇)가 건립되고 추모비가 세워졌다. 이것은 호국 정신을 나타내는 문화재로서 앞으로 학술적 또는 향토사 연구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시흥 관내의 많은 문화유적은 일제(日帝)의 민족문화 말살정치, 또 6.25전쟁과 그 뒤 중앙집권적 행정에 의해 약 1세기에 걸쳐 많이 사라지고 그 유지(遺址)마저 잊혀져 왔던 것이다. 이제 잔존(殘存)하는 유지라도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조선(祖先)의 일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2. 구체적 방안

오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시흥지방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방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술적 연구이며, 둘째는 시민의 의식 속에서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여 창조적으로 전승시키는 방안이다.

학술적 연구란 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과 전통문화유적에 대한 연구이다. 그 내용으로는 문헌 조사와 현지답사 그리고 발굴조사를 들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시(市)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물론 이

러한 내용에 대한 학술적 연구업적이 시와 문화원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겠다.

1) 학술적 연구조사

(1) 문헌(文獻)조사

① 시흥에 관한 문헌 목록의 작성과 발간이다.

조선시대 시흥에 관련된 읍지(邑誌)나 부지(府誌) 또는 군지(郡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각종 지리지와 왕조실록(王朝實錄) 등 시흥 기사(記事)의 발췌 정리와 관내서원 사우(祠宇) 등 인문 자연 지리적인 사항을 모두 정리한다.

② 시흥지방에서 세거(世居)하는 문중(門中)별 족보자료의 확인과 목록의 작성이다.

족보 등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출생했고 어느 시기에 어디서 입향(入鄕)하고 활동했는가를 기록한다.

③ 시흥시 관내의 전적(典籍)목록의 작성과 해제(解題)이다.

시흥지방에서 간행되었거나 또는 소장하고 있는 모든 전적 및 고문서(古文書)등을 정리한다. 전적이란 경서류(經書類), 사서류(史書類),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 문집류(文集類) 등이 모두 포함되며, 고문서류란 조선시대 교지(敎旨), 호적단자(戶籍單子) 등 모든 문서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제를 한다.

④ 시흥지방 지도의 목록 작성과 발간이다.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나온 시흥지방의 옛 지도와 일제 때부터 현재까지 측량지도 등을 종합하

여 발간함으로서, 시흥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 현지 조사

문헌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와 또 구전(口傳)으로 전승(傳承)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확인 기록한다.

① 선사(先史) 및 고대국가 유적지의 정리 및 현황파악(고분 및 유물정리)

② 관아(官衙), 성곽, 봉수대 등 국방유적의 정리 및 현황파악과 역사지(驛舍址)도 정리한다.

시흥 관내의 관아유지, 성곽, 봉수대 유지 등을 찾고 문헌에서 기록된 것도 정리한다.

③ 유교문화재의 정리

사직단, 여단, 우사단, 성황사지 등 단터와 사당(祠堂)과 재실(齋室), 정자, 판액, 비석 등도 정리한다.

④ 사찰 및 사지(寺址) 등 불교문화 정리 및 현황파악

시흥 관내 대야동 사지, 원당사지, 수암사지, 법련사지, 오자산사지 등 그 유지(遺址)를 찾고 현재에 있는 사찰의 전각, 불상, 탑과, 부도, 석등, 범종, 불화 등을 정리한다.

자연사 및 민속분야를 정리하면,

① 물산(物産) 및 보호수의 정리

시흥 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수령(樹齡)이 오래된 보호수를 정리한다.

② 농기구 및 어로기구의 조사정리

전통 농구 및 어로기구 그리고 생활용구 등을 정리한다.

③ 전통 마을의 현황파악 및 집성촌 또는 토박이마을의 조사

촌락의 구성, 식리 및 친목조직, 공동행사, 공동재산의 관리, 협동관행으로서 노동력 동원과 부조관행 그리고 향약(鄉約)이나 동규(洞規) 등의 유무(有無)를 조사한다.

④ 통과례(通過儀禮)의 조사정리

출산의례, 혼례,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을 조사 정리한다.

⑤ 동제(洞祭), 가신신앙의 조사정리

동신신앙, 성주신, 산신, 암석신안 등을 조사 정리한다. 또 무속(巫俗) 및 무가(巫歌) 자료를 조사 정리한다.

⑥ 전통 민속놀이의 조사정리

⑦ 설화의 조사정리

지명(地名) 암석 자연 인물 사건 등에 얹힌 전설을 조사 정리하고 구전(口傳)되어 오는 민담(民譚)도 조사 정리한다.

⑧ 향토민요의 조사정리

농요(農謠) 어요(漁謠) 의식요(儀式謠) 등 토속요(土俗謠)를 녹음 채록하고 가사집도 간행한다.

⑨ 시흥지방 지명총람의 종합정리

자연마을 이름 들 골짜기 고개 산 개울 등 모든 지명, 곧 한자지명 한글지명 등 조사 정리한다.

2) 창조적 전승 방안

① 이상과 같은 학술조사사업을 바탕으로 시흥

지방 전통문화의 내용을 객관화하여 시민의 인식 속에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시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며 그 내용을 창조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② 그러나 이와 같은 학술조사사업은 시나 문화원의 주도아래 뜻있는 인사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문화원에서는 부설로 향토사연구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즉, 관내 향토사학자, 교사, 공무원 기업인 등을 망라하여 연구회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 역사와 문화를 토론, 정리하여 자료로 발간하고 놀이 등은 축제화하여 누구든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③ 시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각 문화재를 지번 별로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에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④ 관광권으로는 주제별(主題別)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시흥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램과 그에 상응하는 이벤트(event)를 개발한다. 즉, 유교문화관광은 선현(先賢)의 학문과 연계시켜 체계적인 유학사상(儒學思想)을 접하고 또 서원(書院)과 사우(祠宇) 등 의례(儀禮)에 있어 주위의 초, 중등학교 학생들을 참석시켜 전통적인 선현 숭배의 기회를 체험하도록 한다.

⑤ 시흥지방이 갖는 자연 지리적 조건, 즉 농, 어촌의 자연특산물을 활용하여 음식문화를 개발하여 특성화시키고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⑥ 시흥시 관내 농악, 민속놀이, 민요 등을 배우

도록 하고 문화원 등이 주관이 되어 정기적으로 공연 또는 경창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전승자를 발굴하고 숨겨진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

3. 삶의 질 고급화는 전통문화의 육성이다.

궁극적으로 이상의 작업은 시흥지방의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적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며 시민의 자아(自我)를 확인하고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찾는 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각종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확인되고 재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적 전통은 어느 시 못지않게 그 문화적 맥락이 길며 또 해안과 내륙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인문 사회적인 조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삶은 깊이 있는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의 전통문화의 뿌리 찾기와 뿌리 내리기에 시민의 여론을 확대시킴으로서 제대로 뿌리를 찾을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관내 각계 인사 및 문화단체의 관심과 시와 문화원 등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끝으로 시흥시의 자연과 전통문화, 인물을 발굴해 육성시키는 작업, 그것이 바로 시민을 문화 인격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나아가 삶의 질을 문화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다.

(烽燧臺) 봉수대

글. 이구

봉(烽:햇불)과 수(燧: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방법을 말한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
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우역제(郵驛制)와 더불어
전근대국가에서 행해지던 가장 중요한 통신 방법의
핵이라 할 수가 있다.

그 유래는 우리나라 보다 이웃 중국 주(周)나라에
서 시작하여 전한(前漢)시대를 거쳐 서기 25~27
년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에 이미 상당히 정
비된 봉수제가 있었고 당(唐)나라 때에 완전히 제
도화하였다.



정왕산 봉수대지 남측 모습

우리나라는 가락국(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치세 중에 봉화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삼국사기) (삼국유사)등에 기록이보여 삼국시대 부터 있어온 것으로 짐작되나 확실한 것은 고려 의종 3년(1149)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曹晉若)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규정하였다.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 발전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세종은 즉위 초기부터 봉수의 거수(炬數; 舉火數), 봉화군의 정원 등 여러 규정을 정비하고, 연변(沿邊) 봉수의 연대(沿臺) 축조, 봉수망(烽燧網)의 확정 등 체제를 정비 강화하였다.

조선의 봉수는 그 시설상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 봉수인 서울 목멱산(木覓山; 南山)의 경봉수(京烽燧), 해륙, 변경의 제1선에 위치하여 연대라 부르는 연변봉수(沿邊烽燧), 경봉수와 연변봉수를 연결하는 내지봉수(內地烽燧)의 셋으로 구분되며, 이 중 연변봉수의 임무가 가장 힘들었으며, 내지봉수는 중간봉수로서 수적(數的)으로 절대 다수였다

이 3종류의 봉수는 시설, 정원, 처벌규정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이 밖에 직봉(直線烽燧), 간봉(間線烽燧)으로 구분되는데 직봉은 기간(基幹)선로상의 것이고 간봉은 그 보조선이며, 이는 다시 본봉(本燧)사이의 중간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의 것과 제일선의 연대로부터 본진(本鎭).

본읍(本邑)에 보고하는 단거리의 것으로 구분된다.

봉수의 관장은 중앙은 병조의 무비사(武備司)가,

지방은 관찰사, 수령과 병사(兵使; 병마절도사), 수사(水使; 수군절도사) 도절제사 순찰사 등 모든 군사책임자가 그 임무를 맡았다.

수령(守令; 鎭將)은 봉수군, 오장(伍長, 監考)의 후망(候望) 근무에 대한 성실여부를 감시 감독하여 이들과 연대책임을 가졌으며 그들의 차출과 출근은 물론 봉수대의 이상 유무를 살폈다.

봉수대에서는 거수를 달리하여 정세의 완급(緩急)을 나타내는데 평시에 햇불 한 개(1炬), 적이 출현했을 때에 두 개(2炬), 적이 해안에 가까이 오거나 변경에 가까이 오면 세 개(3炬), 접전을 하거나 국경을 침범하면 네 개(4炬), 적이 상륙하거나 국경에 침범한 적과 접전하면 다섯 개(5炬)를 올리도록 하였다. 만약 구름이 끼이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대는 포성(砲聲; 信砲, 發砲 등)과 각성(角聲)으로 주위의 주민과 수비군에게 달려가서 알리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오원(五員)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는 오장(伍長)이 관찰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다.

봉수대 소속 인원은 남산에 군사 4인, 오원 2인, 연해와 변경 지방은 군사 10인, 오장 2인, 기타 내륙 지방에는 군사 6인, 오장 2인을 배속했는데 이들은 봉화대 근처에 거주해야만 하였다. 또 봉화대에 배속된 봉군은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고 오직 망보는 일에만 종사하였다.

그 신분은 초기에는 염간(鹽干), 진척(津尺)등과 같이 봉화간(烽火干)이라고도 하여 신랑천역(身良賤役; 양인과 천인의 중간)에 속하였다. 그러나 봉수의 역(役)이 고달프고 갈수록 신분이 낮아 조선

후기에는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변화였다.

봉수망은 전국의 주요 간선로를 5로(5路)로 나누어 직봉(直縫)이라 하였는데 이는 동북은 두만강변의 우암(牛巖;경흥 西水羅, 함경도), 동남 해변의 응봉(鷹峰; 동래, 부산(다대포), 서북 압록강변의 여둔대(餘屯臺;강계, 만포진) 고정주(古靜州:의주), 서남해변의 돌산포(突山浦:순천 防踏鎭)의 5개 처를 기점으로 서울의 목멱산(木覓山:남산)을 종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봉화대는 표주(標柱)를 세워 경계를 설정하고 거짓 봉화나 단순한 방화를 막론하고 해당 진영에서 단속하여 이들은 대개 사형을 당하였다. 또 봉화대 근처에는 무당, 토속에 의한 잡신 제사를 일체 금하였다.

경기 중서부에 위치한 시흥은 동으로 광명시와 안양시에 접하고 서로는 서해안에, 남으로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북으로는 부천시에 닿고 있다. 또한 한 면이 바다가 있는 시흥시는 봉수대의 간봉의 성격을 띤 봉수대가 2곳이나 설치된 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다.

시흥의 봉수대지(烽燧臺址)

오질애(吾叱哀)봉수대지

정왕동 오이도 안말과 가운데 살막에 걸쳐 있는 당봉(堂峯) 정상으로 현재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에 관한 문헌은 세종실록지리지 권 148, 지리지 15, 안산군 봉수조에 봉수가 두 곳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군 서쪽에 오질애(지금의 오이도), 남쪽으로는 무응고리(無應古里)였다.

중종38년(1530) 발간된 『신증 동국여지승람』 권 9, 『안산군 봉수조』와 『동국여지』 권2, 『안산군 봉수조』에 “오질이도 봉수터는 남쪽으로 남양 해운산 북으로 인천 성산에 응한다.(吾叱耳島燧臺 南應 南陽海雲山 北應 仁川城山)”라고 되어 있다.

처음에는 오질애 봉수라 불렀으나 그 후(1536년 이전) 오질이도 봉수로 개칭되고 무응고리 봉수는 폐지되었음을 확인되고 있다.

무응고리 봉수대

무응고리 봉수는 옷애 봉수(오질이도)의 동으로 지금의 안산시 신길동능길 뒷산에 위치한다. 무응고리는 봉홑불로 뜻하는 적길리로 개칭 1914년 일제가 부, 목, 군, 면을 통폐합할 때 신각리와 적길리로 합치면서 ‘신’자와 ‘길’자를 취해 신길리로 지명을 정하였다. 무응고리 봉수터는 1988년 시화지구 토취장에 편입되자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위의 기록 등에서 살펴보면 옷애(오질이도) 봉수는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에 존속했던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당시 지리적 위치가 왜구의 침입로와 연계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외곽지역으로 국방상의 중요한 요충지로 해안경비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봉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발간이후 『여지도서』가 발간된 1759년(영조 35년) 사이에 정왕동 봉우재 뒷산인 정왕산으로 이전된 것이다.



정왕산 봉수대지 북측 모습



정왕산 봉수대지 입구 큰길(동측)

정왕산 봉수대지(正往山 烽燧臺址)

; 봉화산, 봉우재산

정왕산 봉수는 정왕동 봉우재 뒷산 (정왕동, 봉화산, 봉우재산)에 있다. 정왕산 봉수에 관한 문헌은 영조 35년 (1759년)에 발간된 『여지도서』 안산군 산천조에 '정왕산 군 서쪽 30리에 봉수가 있다.(正往山 在郡西三十里烽燧在址)'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 동서 『여지도서』, <봉수조>에 '正往山 烽燧

舊在吾叱耳島 今移于址 南應南陽海雲山 北應仁川城山'이라 하여 그 명칭은 정왕산 봉수인데 옛 오질이도에 있었던 것을 옮긴 것으로 남쪽에서 남양해운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에 응함을 밝히고 있다.

오질이도 봉수를 정왕산으로 옮긴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질이도의 위치가 해안도서에 위치해 안개 등 기상 요건으로 전라,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서해안의 정황을 남쪽 해운산 봉수로부터 전달받아 북쪽 성산 봉수로 전달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정왕산은 해발 115m 상봉으로 이곳에서 주변을 관망할 때 남양의 해운산과 인천 성산을 남북으로 바로 볼 수 있어 안개 등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후 정왕산 봉수는 전라, 충청도의 해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정황을 한성에 전달하는 봉수의 기능을 유지했지만, 고종31년(1894) 갑오개혁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봉수제를 폐지함에 함께 종말을 맞았다. 정왕산 봉수의 봉수군(軍)의 규모는 『여지도서』(1866) 『군병조』에 보면 모두 31명임을 밝히고 있고 『안산군읍지』(1866) 『군총조』에는 별장 1명, 감관 5명, 봉수군 25명으로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 문헌

- * 한국사 진단학회
- * 동아백과사전 동아출판사
- * 시흥시의 문화재와 유적 시흥시
- *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연구원
- * 시흥시의 지명유래 시흥문화원

19회 경기도 민속 예술제를 다녀와서

글. 박일엽 서도소리보존회시흥지부장

오르고 또 오르네 두 손잡아 목에 얹네
꽃무동 숨 고르고 사뿐히 나래 펼 때
푸른빛 하늘 속에는 엄마 음성 나빌레라

여섯 살 꽃무동, 마지막 4단을 올라서서 두 팔을 벌리고 풍장가락에 리듬을 탄다. 순간 응원소리가 잠시 멈추었다. 응원단 모두 일순간을 숨을 멈추었다. 월미 두레풍물 시흥팀은 30분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다.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에서 준비한 민속 작품을 경연을 통해 발굴하고 전승하는 뜻 깊은 행사다.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열렸다. 올해는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졌다. 각 팀마다 30분의 주어진 시간에 지역마다의 향토색 짙은 민속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복원하여 내놓는 자리다. 옛 것을 복원한 소품들, 70명 가까운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과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시흥 문화원에서도 월미두레 풍물놀이가 출전하고, 응원단도 모집하기에 관광버스 한 대를 준비하여 40

여명의 응원팀도 꾸렸다.

아침 7시50분에 문화원에서 모여 포천을 향했다. 문화원에서는 응원단을 위하여 사전에 포천 아트밸리 관광을 준비하였다. 포천시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동행시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 아트밸리는 국비를 많이 들여 옛 대리석 채석장을 공원화하고 관광지화 하였는데, 산상 호수의 풍경은 외국 어느 유명 관광지 못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트 밸리 정상 인근에는 화장실을 캐낸 자리에 자연의 울림을 이용하여 무대가 만들어져 있었다. 산상 호수에 접한 무대는 음향 설비가 없어도 소리가 맑고 크게 잘 들린다는 해설사의 권유에 향토 민요팀들이 그냥 지날수가 없어 시흥 향토민요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민요 사랑팀과 함께 바닥에 앉아 무릎 장단으로 한바탕 소리를 하고나니 없던 기가 충전되는 것 같았다. 내 나라를 떠나면 애국자 된다더니, 포천의 명물을 접하면서 갑자기 우리 시흥 포도, 햇토미, 연꽃 테마파크, 갯골 생태공원 까지 떠오른다.



문화원에서 준비한 김치찌개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경연장으로 향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열리는 포천종합운동장에 도착하였다. 이틀에 걸쳐 치뤄지는 행사라 정원철 문화원장은 하루전날 도착하여 우리 시흥팀을 기다리고 계셨다. 각 지역 문화원의 지원을 받은 출전팀들의 경연이 뜨거웠다. 운동장 뒤편에서 다음 출전을 기다리는 팀들의 긴장된 얼굴과 더불어, 또 한 편에는 포천의 향토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가 한창이다. 포천 막걸리와 이동갈비도 홍보 부스도 보이고 한낮임에도 막걸리를 즐기는 이들도 꽤 많았다. 두 팀 정도 남겨놓고 운동장 정면에 프랑카드를 세우고 응원단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구호도 사전에 준비하고 응원단장도 정해 놓았다. 우리 응원단의 사기가 높아져, 오후 3시에 출전한 월미 팀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여 응원을 하였다.

“시흥! 월미!, 잘한다! 어얼쑤!” 사전연습을 해보는 사이 시흥 월미두레 풍물 팀이 입장하였다. 우리는 미리 구호를 외치며 응원을 시작했다. 마치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듯 일사 분란한 좌우세를 그

려내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품이 펼쳐진다. 문화원장은 운동장 전면 본부석 앞에서, 응원단은 운동장 건너편에서 목이 터져라 함성 지르고 박수치며 응원을 하였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월미두레 풍물팀은 너무나 잘해주었고 아름다움을 연출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여섯살 꽃 무동이 누나 삼촌들의 어깨를 타고 작은 다리 파르르 한번 떨면서도, 의젓하고 유연하게 흐름을 타는 것을 보고, 예인의 길을 생각하였다. 국악에 한생을 건 내 삶의 전반까지 투영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 어린 아이가 공포를 이기고 가락을 타며 바람을 타고 햇살을 휘젓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나는 짐작이 간다. 어른도 청년들도 모두가 옷이 흠뻑 젖도록 가을 하늘을 휘저었다

2년 전에 ‘시흥 상여소리’로 우리 단체도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출전하여 민속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봄부터 한여름을 나고 가을이 되어 출전하기까지 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24명이 매는 상여이기에 반드시 야외에서만 연습할 수 있어, 뜨거운 태양과, 더위, 비바람과 동무하면서 연습하여

야 했다. 시와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는 상여 하나 구입하기 힘들어, 지원받은 보조금보다 더 많은 사비를 지출하여 경연에 참가한 기억이 아직도 아프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애환을 겪는 참가팀이기에 열심히 응원하였다.

민속예술을 발굴 한다해도 전승자를 모으는 일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 요즘같은 시대에 무작정 시군간의 경쟁이라고해서 나서는 봉사자를 모으기 어렵다. 출전하는 것이 경제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보니 사명감있는 몇몇의 예술인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투자와 전승을 함께 해야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 군이나 사라지는 민속에 관심을 두는 몇몇 시군에서 출전하는 작품들은 소품도 충분하고 충분히 연습하여 출전을 한다. 시 차원에서 복원하고 전승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 전승자들의 고충이 덜하다고 한다. 경연 결과 어떤 상을 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경연에 참여하기까지 전래의 민속을 작품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민속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여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그 작품을 인지하고 유래를 이해하고 느끼기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고,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땀이 배어났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이번에 참관을 하면서 바람이 생겼다. 평상시 시차원에서 우선 발굴해놓은 민속 예술이라도 전승할 수 있도록 “민속 예술 전수관”이 건립되면 좋겠다. 놀이마당도 함께....우리 시흥시를 찾는 사람들이 들러 매일 상설 공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흥시의 민속을 알게 되고, 매력적인 문화예술도시 시흥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천 공항이 가까워 요즘은 우리 시흥시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관광 상품으로 개발 연계하여 전승작품도 알리고 시흥을 알리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여러 작품을 구사하는 월미 두레 풍물도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시흥의 바닷가 소리, 상여 소리, 시흥 들노래, 성황제 등 우선 발굴 전승되는 작품이라도 전폭적인 지원하에 시흥시 정주의식을 되살리고 특화된 예술작품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커다란 역할을 할 날들을 기대해본다. 항상 열려있는 전수관이 세워지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는다. 다시금 이번 경기도 민속 예술제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정선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교류

시흥문화원과 친구가 되다

글. 류정숙



은 없었다. 특별한 뭔가가 있을 듯, 부푼 기대를 하며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출발날, 시흥문화원 앞에서 버스가 출발한단다. 시흥에서 산지 18년인데 문화원은 역시나 낯설었다. 차를 타고 지나다니며 본 기억을 되살려 문화원을 찾아갔다. 원장님께서 반갑게 웃으시며 악수를 청하셨다. 첫인상

여행을 좋아하는 나에게 걸려온 뜻밖의 전화 한 통, 1초의 망설임 없이 네. 기회가 주어졌을때 냉큼 받아채기는 민첩함이 한 몫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10월 22일 1박 2일로 떠나는 정선 여행이란단다. 정선 5일장은 2일과 5일에 장이 서는 시골장의 으뜸이다.

정선 여행을 세 번 정도 갔었는데 장날에 간적

이 푸근하다. 연예인 누구랑 닮은 듯도 하다.

시흥문화원이 주최하는 레전드 잉벌로 밴드의 정선 5일장 공연과 응원을 위해 출발, 완연한 가을 날씨는 일행의 설레임을 두 배로 느끼게 함에 손색이 없었다. 달리는 버스에서는 각자의 소개가 한창이다. 1박 2일을 함께할 어르신들이기에 귀를 쫓긋해본다.

잉벌로, “넓은 땅, 뻗어가는 땅”이라는 시흥의 옛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널리 널리 뻗어나가길 바란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시흥의 자랑이 된 잉벌로 밴드의 어르신들을 소개하는데 한 분 한 분의 연세를 들을 때마다 합성과 박수가 절로 나왔다. 평균 연령이 84세란다. 와 와 짹짹 공연단과 원장님 계장님 주임님의 소개가 끝나갈 쯤 영월에 있는 단종의 능인 장릉에 다다랐다. 하늘이 넘넘 예뻐서 카메라에 담는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이는 셋노랑고 빨간 단풍도 한 컷 찍는다. 대부분의 왕릉은 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장릉은 지방에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란 다. 조선의 왕릉에는 문관 석상과 무관 석상이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곳 장릉에 무관 석상을 세우지 않은 것은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릉앞에 있는 식당에서 각종 나물과 시골 된장으로 한상 차려진 밥상을 받아 맛나게 남남대며 먹고 보니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서 또다시 버스에 올랐다. 구불구불 정선으로 가는 버스에선 계장님의 역사 강의가, 단종의 짧은 생애 역사학을 공부하신만큼이나 아는 것도 많다. 기회가 된다면 역사 공부도 해보고 싶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역사 드라마를 봐도 당최 모르겠으니 말이다.

길가의 물들어가고 있는 가로수와 가까이 보이는 산의 알록달록한 단풍 구경이 끝나갈 즈음 정선

에 도착했다. 서둘러 정선 5일장에 도착해보니 축제가 한창이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차력쇼가 진행 중이고 무대 뒤에서는 잉벌로 밴드가 준비 중이다.

자리 잡고 앉아 박수와 합성으로 불쇼도 즐기고, 수리취떡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한 컵씩 나눠주는 특산물인 수리취떡도 받아먹었다.

노래자랑 나온 관광객들의 춤사위 구경도 시들시들해져가고 있던 중 드더 시흥의 자랑 잉벌로 밴드 순서, 자리에서 일어나 손은 손뼉을 치고 입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발은 동동 굴러가며 응원을 하니 저절로 분위기는 잡혀졌다. 공연장은 이미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여가수님 세분으로 인해 어느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하고 있었다. 이제 91세 어르신의 순서, 두 손을 번쩍 올리고 열창에 열창을 더해 공연장을 뜨겁게 마무리하셨다. 도대체 어디에 저런 힘과 열정이 숨어 있었을까나, 참으로 대단하시다. 감탄과 감탄뿐인 공연이었다.

‘시흥’이라는 소박한 동네를 알림에 최선을 다한 레전드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탠 눈물이 소리없이 흘렀다. 누가볼새라 소매끝으로 눈물을 훔치고 본격적인 시장 구경에 돌입! 볼거리 먹거리 삼매경 뒀니 뒀니해도 유명한 나물인 곤드레가 제일 많다. 낫설은 나물도 있고, 더덕, 버섯, 수수, 마 등등 많다. 해가지니 쌀쌀해진 날씨 탓에 허기가 밀려온다. 저녁 메뉴는 시장을 옮겨온 듯 더덕구이에 각

중 나물, 정선 문화원에서 옥수수막걸리를 선물로 갖고 오셔서 공연진들께 감사를 전하셨다. 그 덕분에 분위기는 왓지떨었다. 문화원의 이런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하루 일정을 흐뭇하게 마무리했다.

두번째날,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로 떠나는 버스 안에서는 문화원 원장님의 역사 강의로 우리는 학창시절로 돌아갔다. 하룻밤을 같이 보낸 터라 더 정겨운 여행길이 되었다. 어제의 우리는 없고 오늘의 우리만 있다. 상원사를 먼저 둘러보고 월정사로 내려왔다. 수학 여행 온 학생들이 줄지어 서있다. 나도 저런 학창 시절이 있었는데, 잠깐 추억에 잠겨본다. 30년전에 나도 저 무리들 속에서 재잘 재잘 대고 있었다. 장소는 다르지만 느낌은 같다.

햇빛을 받은 단풍 나무가 완전 금빛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파랗다. 순간 어느 영화 속의 한 장면인양 착각하게 만든다. 30분정도 숲길을 걸으며 바라봐지는 하나하나의 풍경들이 좋다, 너무 좋다. 아주 많이 좋았다. 상원사와 월정사에서 의 아늑함을, 고즈넉함을, 폭신평신했던 낙엽들을 뒤로하고 떠날 시간이다. 전나무 숲길의 눈이 시리도록 예쁜 단풍과 아슬아슬 흐르던 긴 계곡의 싸아함이 내 기억 속 깊이 오래 남을 듯.

한 가지 아쉬움은 단체로 움직이다보니 월정사와 상원사 옛길인 선재길을 못 걸었다는 것. 3시간 남짓 걸어야하는데 일정도 허락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러웠다.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겨본다. 다음에 우리가 정선 문화원 식구들을 초대한다면 어디에서 공연을 하게 할까나? 어디를 관광 시켜 드릴까나? 또 어떤 먹거리를 대접할까나? 시흥의 자랑할 만한 곳은? 등 공연은 삼미 시장, 문화의 거리, 옥구 공원의 무대에서 하면 되고 소래산, 늑내길, 군자봉, 관곡지, 갯골 생태 공원을 같이 걸으면 되고, 시화호 방조제에서 드라이브 하면 되고, 먹거리는 물왕저수지와 오이도 등대, 소래 포구에서 해결하면 되고, 문화원에서 담소 나누며 차 마시면 되고……

흐뭇하게 웃음 짓고 있는데 서글픈 사실 하나가 떠오른다. 시흥 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는 건물, 웬지 안 어울리는, 지금은 간판만 예쁘다. 정원이 있고 과실수도 있는 마당을 가진 멋진 문화원이 꾸며지길 바라본다.

순천 갈대 습지와 신성리 갈대밭에 간 적이 있었다. 포동 운동장 지나며 보았던 한심하게 서 있는 갈대가 생각났다. 마구잡이로 크고 있는 갈대와 넓은 땅, 왜 개발 되지 않는 진 모른다. 하지만 가꾼다면 또 하나의 명소로 탈바꿈하지 않을까싶다. 시흥에서 보금자리를 튼지 열여덟 해가 지나고 있는 이 가을에 떠난 여행으로 인해 난 이 곳에 발을 담구어 보기로 하며 그 날로 나도 문화원의 식구가 되었다.

끝으로 시흥의 자랑으로 소개할 수 있는 문화원을 만들어 보자.



‘책 놀이터 도서관에서 만나다’

글. 전영준

시흥시중앙도서관(관장 성기양)은 9월 27~28일 양일간 중앙도서관과 정왕동 중앙공원 일대에서 ‘2013 도서관 책 축제’를 개최하였다. 책 축제 행사는 권역도서관, 독서동아리, 자원 활동가들의 그간의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 존을 운영, 시민 중심의 축제로 열렸다.

사 참여시 찍은 사진을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접수 받은 사진이 행사장 주변에 전시되었으며, 시흥문인협회는 해설이 있는 시 서각전을 개최하여 작가들과 시민들과 시화전 도록과 시작노트를 배포하여 시와 문학이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책 읽는 모습, 도서관 배경 행

책 축제 행사동안 진행되는 소망별집 만들기는 각자의 소망을 적어 별집을 만들어가는 체험과 행



사장 곳곳에 비치된 책 모형이나 동화 속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매월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저자 강연은 책 축제를 맞아 행사기간동안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오후 2시부터 '인생은 연극, 인간은 배우다'라는 주제로 텔런트 김성환의 연기 인생과 건강 상식 그리고 민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창을 부르면서 강의를 2시간동안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시민들은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이어서 오후 5시에 중앙도서관 문화마당에서 열린 식전 행사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시흥챔버오케

스트라의 공연은 어느 멋진 가을날을 선사하였으며 개회식은 유만희 축제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 학생들의 자작시 낭송과 좋은글 낭독 그리고 내빈들의 애창시 낭송과 독서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개막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들간의 시흥시민들의 지식의 욕구와 인문학에 대한 이해의 장이 이틀간에 걸쳐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폐막식에서는 시티필하모니오케스트라 식전공연과 시흥원드앙상블의 축하공연으로 2013년 책 축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흥, 단상

글. 박현숙 장곡중학교 교사

“엄마 개구리가 ‘들풀아 놀자, 들풀아 놀자’해.”
저녁 연꽃테마파크를 지나가는 도로 길가를 걷던 우리 딸이 나에게 한 말이다.

금호아파트 뒤쪽으로 난 도로 길,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녁마다 걷는 산책로다.

눈이 쌓인 눈, 벚꽃이 분분한 봄, 연잎 향 가득한 여름, 벚나무 물든 가을, 어느 계절 아름답지 않을 때가 없다.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또 걷는 것일 게다.

그 여름 길 위에서 우린 개구리 소리를 14번을 더 들었다. 그리하여 다섯 살 딸은 고3이 되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나는 이미 시흥 사람이고, 우리 딸은 시흥이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전국에서 가장 벚꽃이 늦게 핀다는 시흥, 그래서 그 고운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시흥, 이 시흥이 참 좋다.

우리 동네엔 나지막한 산들이 군데 군데 있다. 눈이 있고, 밭이 있고, 작은 내(川)도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트랙터를 보고 “뿔” 하고 웃음을 터트린 사람도 있다 했다.

봄엔 벚꽃이 하얀 잎을 폴폴 날리며 가슴을 흔

들고, 옛 기억을 기어이 떠올리게 하고, 급기야는 눈물까지 뿜게 한다. 그럴 때쯤 물을 댄 논에 심어 놓은 벼가 파랗게 줄지어 진흙바닥을 가리며 겨울을 밀어낸다. 벚꽃 잎이 청록으로 질어지기 시작하면 연꽃 테마 파크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진을 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백련과 홍련들이 연밭 가득 꽃을 피우고 연꽃 향은 짙어진다. 팔월의 저녁이 되면 연꽃테마파크 안엔 빅토리아를 만나려는 사람들도 북적이고 연못 중앙을 향해 불빛이 비춰진다. 그러는 사이 길가에 작은 천막이 하나둘씩 들어서며 주민들은 향기 짙은 보라빛 포도를 내어 놓기 시작한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논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빨간 벚나무 잎은 도로를 뒹굴기 시작하는 것도 한 순간, 흰 눈이 논을 덮기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문득 베란다 밖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짜잔! 하며 시흥은 달력에나 있을 법한 경치를 내게 펼쳐 낸다.

이렇게 순박하고 정이 누덕누덕 묻어나는 마을이 또 있을까?

개구리 울음 소리를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듣던 딸은 지금 영화를 전공하고 싶다 한다. 그리고 수시로 영화과에 합격한 상태이다. 어떤 과외나 사

교육을 해 본 적도 없는 아이가 혼자만의 힘으로 영화과에 합격한 것은 시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한다. 과연 도시에서 자랐다면, 네모의 건물과 도로, 뿌연 하늘과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자랐다면 과연 아이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 어떤 과외나 사교육의 힘 없이 영화과에 들어갈 수 있는 정서가 만들어졌을까? 시흥의 자랄한 아름다움이 아이의 심성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2010년 여름 시흥시문화원의 문화관광 해설사분들과 함께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강희맹 묘와 연꽃테마 파크, 관곡지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강희맹 묘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의 설명을 듣고 내려오며 풀 썰매를 타기도 하고, 연꽃 테마 파크의 설명을 들으며 연꽃 앞에 물을 부으며 또르르 뭉치는 물방울을 보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성동을 돌아다녔다. 그런 후 아이들은 교실로 돌아와서 시를 지었다.

다음의 시는 2010년에 1학년이었던 학생의 시다.

낙화

1-10 김민지

거짓이 가득 찬 진흙 속
진실을 가지고 태어나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든다

하늘이 흘리는 서러운 눈물은

작은 잎 속에서 구슬로 맺히고

연못에 담긴 일그러진 물은
커다란 손에서 또 하나의 투명한 조각으로

연은
슬픔에 못이겨 깨져버린
조각을 모아
커다랗게
뽀얀 꽃을 하나 틔운다.

이 세상을 것을 받아들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한껏 틔운 후

연은
소리 없이 떨어진다.

아이들의 시를 보면서 나는 가슴이 파르르 떨렸다. 여느 시인이 지은 시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손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국어교사로서 행복감에 몸이 떨렸다. 지금도 풀썰매를 타며 깔깔대고, 연잎에 물을 부으며 물로 구슬을 만들면서 탄성을 지던 개구쟁이들이 교실에 들어와 의젓한 시인이 되어 시를 지어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와 영화가 되게 하고, 시가 되게 하는 시흥, 시흥의 매력에 빠져 햇살 머금은 군자봉의 가을을 눈으로 만끽하고 있다.

호조별은 1721년 경종임금때 만들어진 약 150여만평의 논이다. 이 논이 시흥시의 행정구역상 매화동, 목감동, 포동, 연성동, 은행동등에 걸쳐있는데 그 중에 매화동 주민들은 호조별을 마을과 집의 앞마당처럼 여기며 사랑한다.



호조별은 1721년 경종임금 때 만들어진 약 150여만평의 논이다. 이 논이 시흥시의 행정구역상 매화동, 목감동, 포동, 연성동, 은행동 등에 걸쳐있는데 그 중에 매화동 주민들은 호조별을 마을과 집의 앞마당처럼 여기며 사랑한다.

매화동 주민들에게 호조별은 단순한 논이 아니다. 물론 농민들에게는 일터이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매화동의 많은 주민들에게는 쉼터이고, 마음에 치유를 주는 병원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수도권외의 황금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경제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호조별은 이렇듯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곳이다.

가을날 호조별 들녘을 가만히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걸어보시라. 일렁이는 벼이삭들의 물결을 보며, 벼이삭들이 부딪히며 내는 벼들의 속삭임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엔 평화가 깃들고 머리는 맑아질 것이다.

호조별 축제와 매화동 사람들

글. 강석환 시흥의제21 사무국장
제 9회 호조별축제 추진위원회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조별을 지키고, 호조별의 풍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매화동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호조별에서 “호조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의 모든 기획과 진행은 매화동 주민들이 한다.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도(약 20,000천원) 모두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한다.

작년 2013년 제 9회 호조별 축제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주민들은 매화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호조별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호조별 축제를 진행했다.

제 9회 호조별축제에서 호조별축제 추진위원장은 호조판서로(호조별을 조선시대 경종때 호조(戶曹)라는 부서에서 만들어서 호조별이라 불린다), 매화동 동장은 고을 사또로 등장해 축제를 진행했다.

축제에 참여한 매화동 주민들과 시민들은 호조판서와 고을 사또의 등장으로 우리 전통문화와 호조별의 유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볼거리가 되었다.

이외에 매화동 주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벼베기 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경운기타기, 새참먹기, 인절미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호조벌을 알릴 수 있고, 호조벌의 가치를 높이면서,



매화동 주민들이 하나되는 축제, 이것이 호조벌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로서 우리의 전통과 농경문화, 그리고 공동체행사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도시에 살면서 경운기를 타보고, 낫으로 직접 벼베기를 할 수 있는 축제가 호조벌 축제이다.

또 하나 호조벌축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모금으로 행사비를 마련하지만 행사를 통해 남는 수익금은(먹거리판매, 기념수건판매등)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호조벌이 조선시대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간척을 통해 만들어진 취지를 살리고 계승하기 위함이다. 2013년에도 매화동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였다

2014년은 호조벌축제가 10번째를 맞이한다. 시흥갯골축제가 9번째이니 호조벌축제가 더 먼저 시작된 셈이다.

10회 호조벌축제를 준비하는 매화동 주민들은 벌써부터 각오가 남다르다. 10회이니 만큼 더 많은 준비로 시흥시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볼 셈이다. 이를 위해 매화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호조벌 관련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먼저 호조벌에서 4계절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정월대보름에는 호조벌에서 달집태우기등 “호조벌 정월대보름 축제”를 진행하고, 봄에는 “호조벌 모심기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여름에는 “호조벌에서 우렁이 잡기”, 가을에는 “호조벌 벼베기 체험”, 겨울에는 “호조벌 썰매타기”등 호조벌축제를 매년 가을에 한 번 하는게 아니라 계절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호조벌축제 추진위원회(호조벌을 사랑하는 모임) 일찍 구성할 예정이다. 매화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흥시민들이 기대하셔도 좋은 제 10회 호조벌축제가 될 것이다.

매화동주민들만이 아니라 시흥시민 모두에게 쉽터가 되고, 놀이터와 일터가 되는 호조벌을 위해 매화동 주민들은 오늘도 호조벌 청소를 하고 호조벌의 꽃길을 가꾸며 호조벌 축제를 준비한다.

2014년 햇볕 좋은 가을날, 호조벌로 오세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호조벌을 거닐어 보세요.

도일시장 수산대장간 장인(匠人) 윤영수

글. 박경빈

장인(匠人):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2014년 1월. 시흥시 군자로 171.

도일시장 한 켠에 33년 동안 매일 들려온 망치질 소리. 다른 아닌 수산대장간 윤영수(62세)씨가 쇠를 녹여 갖가지 농기구며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소리다.

우주여행이 화두가 되고, 3D프린터기가 불가능을 넘보는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값싼 중국산 농기구나 도구들은 대장장이 윤영수씨가 만들어내는 도구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가격은 4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그만큼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덩이가 호미로 태어나기 위해선, 1300도의 화력(火力)과 300번 이상의 메질(망치질), 熱 과 冷 을 오가는 수차례의 담금질, 녹이고, 늘이고, 잘리고 그런 다음 달궜진 쇠를 받아들이는 나무 손잡

이와 만나 비로소 새 생명을 얻는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대장장이의 삶

가난한 살림살이에 6남매의 장남이던 윤영수씨는 14살 어린 나이에 대장간 일을 시작했다.

조남동에서 대장간을 하시던 아버지를 도와 화덕에 풀무질부터 배웠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대장간의 화덕은 어린 대장장이에게는 너무나 큰 벽이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 몇 번이고 달아나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무거운 망치를 들고 서 있으면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앉고 싶을 때가 많았지요, 저녁에 돌아와 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아파서 이불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른 아침 대장간 일을 시작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여 처음엔



불만도 많았다.

시험을 봐서 가야하는 상급학교에 합격하고도 대장간 일을 도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메질(망치질)을 하며 울분을 삭히고, 담금질을 배우며 평정심을 배웠다. 남몰래 흠치던 눈물과 땀이 어엿한 장인으로 구워지던 세월. 그는 그렇게 대장장이가 되어갔다.

삶은 끝없는 담금질의 연속

군대에 가기 전과 다녀온 후 몇 년. 다른 일을 찾아보겠노라고 대장간 일을 그만두었다.

동생들도 어느 정도 커서 마음의 부담이 줄었고, 젊은 혈기에 이보다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배움이 짧으니 번듯한 일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일, 저일 닥치는 대로 했었지요.”

막노동으로 몇 년을 보내보니, 몸으로 익힌 대장장이 일보다 만만한건 없었다. 그나마 대장간일이

훨씬 나았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업을 이어 받아 도일시장에 둥지를 차린 것이 1980년 5월이다.

도일시장 한쪽 편에 지금의 수산대장간을 열었다. 방과 부엌이 딸린 자그마한 가게에 간판을 달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 이름의 ‘수’자와 아내 이름의 ‘산’자를 넣어 수산대장간 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행복한 단꿈을 꾸던 신혼시절. 대장간은 젊은 주인의 마음처럼 희망적이었다.

반월·시화공단이 들어서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농기구 대신 산업도구들이 많이 팔렸다.

건물을 지어 올릴 때 가장 많이 쓰이던 철근 결속기는 그 시절 가장 많이 만들어냈던 품목. 손으로 일일이 메질을 하던 것을 1985년즈음 스프링 함마가 나와 수월해졌다. 수작업으로 고된 대장간 일에도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기 시작할 무렵 도일시장에도 변화가 왔다. 인근 도시에 큰 시장이 형성되자 도일시장의 번성기는 옛 명성으로만 남게 되었다. 지금도 5일장이 열리긴 해도 명맥만 이어갈 뿐이다.

“이제 나이도 들고, 어디 가서 새로 일을 배울 엄두도 나지 않고 그저 지금껏 해 왔듯이 몸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직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로 그의 손에서는 여전히 튼튼하고 실한 도구들이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다.

시흥탐방

안산농협 재발견

○ 안산농협의 발족

1970년 9월 12일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의 이천원씨가 초대조합장으로 추대되며 수암면 관내 18개 리·동 조합이 승격하여 '수암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수암농협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이었으며,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256번지'에서 시작하였다.

○ 안산농협 관할구역

1970년대,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의 하중동, 하상동, 목감동, 능곡동, 광석동, 조남동, 논곡동, 화정동, 물왕동, 산현동이 현재 안산농협의 시흥시 관할구역이다.

○ 안산농협의 발전과정

수암농협의 발전(태동기 1970-1982)

1. 수암단위농협 사업시작 : 비료판매 대행
2. 벼한가마 출자 운동으로 자본확충 : 이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가구당 벼 한가마니를 출를 독려하고, 봄에는 겉보리 한 가마니를 내도록 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줄 것을 부탁(1971년 대)
3. 준자립조합으로의 승격 : 준 자립조합으로 승격됨에 따라 상호금융 예수금과 대출금의 취급 실시
4. 이천원 조합장의 연임 : 출자에 의한 자기자본 조성과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자립조합의 기틀을 이룩하는 등 이천원 초대조합장의 기출인 성과를 인정받아 제 2대 조합장으로 연임됨(1974년 2월 2일)
5. 수암단위농협으로의 명칭변경 : 수암농업협동조합에서 수암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됨(1974년 7월 1일)
6. 안산창고 매입, 능곡창고 및 수암 양곡창고 건립 : 시흥군 조합으로부터 안산창고(수암면 수암리 442) 매입, 조합원

으로부터 능곡창고 부지(수암면 능곡리 44-1) 구입 및 창고건립, 시유지(수암면 수암리 137-4) 구입 및 수암양곡창고 건립

7. 고잔분소 설치 : 현재 고려대병원 자리(고잔리 산 95번지)에 사무실 신축
8. 자립조합 승격 및 봉사자립조합 승격 : 수암농협은 78년 말 평가에서 자립조합으로 선정되어 다음 해 5월 9일에 자립조합으로 승격

안산농협의 경영기반 다지기(기반확충기 1983-1996)

1. 박명현 조합장 취임 : 물왕리 지역과 수암농협을 위해 봉사하던 중 수암농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제 5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2. 수암농협 관할구역 변경 : 시흥군 반월출장소였던 기존의 관할구역은 1986년 반월공단에 반월사업소가 생기면서 안산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암농협의 관할구역은 1986년 3월 4일, 수암면 일원과 안산시 지역(수암동, 중앙동)으로 변경
3. 박명현 조합장 연임과 새농협운동의 전개 : 박명현 조합장은 제 6대 조합장으로 연임하며, 새농협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새농협운동은 농협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여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민주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2의 도약운동
4. 고잔분소의 이전 : 반월출장소 임시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고잔분소를 1986년 12월 15일 안산시 고잔동 586번지에 있는 우성상가로 이전
5. 수암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 농협법개정(농림수산부 고시 89-14호)에 의해 기존의 수암단위농업협동조합은 1989년 2월 14일 수암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
6. 박명현 조합장 3선 취임 : 7대부터는 조합원 직선에 의해 조합장을 선출 하게 되었으며, 유효투표 1,602표 중에서, 박명현 후보자가 640표로 최다득표하여 제 7대 조합장으로 당선
7. 목감분소 준공 : 목감동 지역중심이 개발되면서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금융 수요 및 편의를 충족하고자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인산업도로가에 있는 수암농협 자재창고였던 대삼창고를 고쳐 영업점으로 이용해 오던 중 처음으로 목감에 분소를 설치
8. 부곡지소 개소 : 타 금융기관 설치 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조합원에 대한 편의 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수신 증대를 위해 1991년 3월 18일에 부곡 지점이 처음 개설

9. 고잔지소 이전 : 1991년 고잔동 518번지에 위치한 자유빌딩 2층으로 이전
10. 목감지소 이전 : 1992년 3월 15일, 시흥시 논곡동 160-7번지에 있는 산호상가 1층으로 확장이전
11. 능곡지소 개소 : 관할구역인 시흥시 연성동 지역의 하중동, 광석동, 능곡동, 화정동 조합원과 이용주민의 숙원사업으로 1992년부터 지소를 개설하고자 노력하였음. 따라서 연성동 지역조합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창고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5년 9월 20일, 단층건물로 증·개축하여 능곡지소 개점

IMF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성장기 1997-2006)

1. 안산농협으로의 명칭 변경 : 관내 행정구역명이 시흥군에서 안산시로 변경되자 본점이 있는 수암동보다는 앞으로 안산은 공단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시흥보다 훨씬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박명현 조합장은 예상했다. 이에 박명현 조합장은 수암농협의 미래발전에 대한 포석으로 1997년 1월 1일을 기해 본소를 안산(현 성포본점)으로 이전하고, 안산이라는 명칭을 먼저 사용하고자 그 명칭 또한 안산농협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박조합장은 그 당시 본소를 안산으로 옮기는 문제와 명칭 변경건을 결정짓기 위해 여러번 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흥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부결되곤 하였다. 저항의 이유는 실질적인 토지나 조합원들의 거주지가 시흥 쪽에 더 많았으므로 본소를 안산에 옮기고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 안건이 임시총회를 통해 통과되었음에도 시흥지역 대의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대하였지만 가결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로 판단되고 많은 농업인이 지지하였다.
2. 제 9대 윤성준 조합장 취임 : 1997년 3월 9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525표 중 윤성준후보자가 1,029표를 득표하여 제 9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3. 선도복지조합으로 승격 : 선도복지조합이란, 합병과 농민본위의 농협개혁을 주도하고,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농업인을 선도하여 21세기 농업·농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간촌 모델조합을 말한다. 안산농협은 1999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도복지농협 평가결과 선도복지농협으로 평가되어 선도복지농협 달성탑을 수상하였다.
4. 연성지점 개점 : 하중동 쪽의 연선택지개발과 시흥시청 이전 등으로 인한 유입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어 시흥시 하중동 852-4번지에 연성지점을 신출 개점하였다.
5. 고잔지점 확장이전 : 1991년 4월 자유센터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을 매수하여 이전하였다.
6. 중앙지점 개점 : 고잔 신도시 개발로 대도시 지구가 조성되어 2003년 12월 20일 안산시 고잔동 769-3 거성타운 101호에 중앙지점을 개점하였다.
7. 영농자재지원센터 개점 : 지점별로 영농자재를 취급한 것을 개선하여 물왕동 부지(물왕동 349-2)를 구입하여 영농자

재지원센터 건축하였다.

8. 제 10대 윤성준 조합장의 연임 : IMF 국제 환란중에서도 구조조정을 잘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실적을 안정적으로 증진한 점을 인정받아 무투표 당선으로 2001년 4월 2일 제 10대 조합장으로 연임되었다.
9. 제 11대 정광현 조합장 취임 : 2005년 3월 12일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1,586표 중 588표로 최다득표하여 정광현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10. 제 12대 정광현 조합장 연임 : 2009년 3월 8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1,405 중 정광현 후보자가 934표로 최다 득표하여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새시대의 서막을 열다(도약기 2007-현재)

1. 제 12대 정광현 조합장 연임 : 2009년 3월 8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1,405 중 정광현 후보자가 934표로 최다 득표하여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2. 제 13대 박경식 조합장 취임 : 2011년 12월 조합장 보궐선거를 통하여 박경식 후보자가 최다득표로 조합장으로 당선

○ 시흥시에서의 안산농협 역할

1. 도농교류

안산농협은 농촌체험을 통한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농가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실천하고 도농간의 상생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농업인 복지

안산농협은 지역사회와 문화·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취약농가지원 사업과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의 농촌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인적자원화를 도모하고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농촌,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뿌리

내릴수 있도록 기존 지원하는 사업을 한층 강화함. 모국 방문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기마련과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적·체계적인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나)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파견하여 영농을 대행하고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유희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다)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회봉사 대상자가 농촌일손돕기 등 공익적 사업에 일정시간 봉사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끼친 손해를 만회하고 잠재된 이타주의적 봉사정신을 일깨우며 농업인에게는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라) 장학사업

전국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안산농협의 장학사업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조합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 약 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할지역 초등학교에 도서기증, 야생화 꽃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음.

3. 농업인 권익대변

안산농협은 농업인들의 권익대변을 위한 활동으로 각종 농정현안의 정책대안과 제시와 농업인 숙원사업 지원등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대변 활동에 앞장서고 있음.

가) 무료 법률구조 사업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적인제약과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권익을 찾기 힘든 농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법률 구조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나) 농업인 소비자 보호산업

소비자로서의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농업인 소비자 보호산업을 전개하고 있음.

4. 영농비 절감

안산농협은 비료, 농약, 농기계, 유류 등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5. 생산과 소비자의 만남의 장

가) 농협 하나로마트

안산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확대라는 농협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취급비율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 농협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 농산물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식품 유통의 핵심주체로서 유통과정의 중심에 서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패턴을 다양화 하는 매개체의 역할로 유통비용 절감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

○ 시흥시 소재 안산농협 지점안내

1. 연성지점 : 경기 시흥시 하중동 852-4, 031-317-4592(지점장 : 윤병학)
2. 능곡지점 : 경기 시흥시 능곡동 745, 031-435-0500(지점장 : 윤한우)
3. 목감지점 : 경기 시흥시 논곡동 160-7, 031-405-8616(지점장 : 추은정)
4. 연꽃지점 : 경기 시흥시 물왕동 349-2, 031-487-8171(지점장 : 심재곤)



베트남 청년(부강대우)의 시흥생활

글. 김창희

지금 내 눈엔 남몰래 눈물이 고여 흐른다. 술을 마시면 고약한 버릇이 있는데 눈물이 많아지는 병이다. 낯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허연 연무를 보며 커피 한 잔 들이키고 있을 뿐인데 눈물이 난다. 아들 같은 “부강대우”라는 베트남 청년 생각이 늘 머릿속에 박혀있다. 내게 오래된 지병처럼 부강대우가 들어와 앉아 꿈쩍 않는다. 스물네 살의 베트남 청년인 그는 오 남매의 맏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아픈 지 오래되었고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

그를 만나게 된 건 2년 전의 일이다. 일요일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갈 곳은 많지 않다.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복지센터는 대부분 두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어 교실을 비롯해 운전면허취득과 각종 스포츠 활동도 하게 되고, 자기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일요일이면 늘 외국인센터는 북적거린다.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자주 만나왔던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왔고, 우리의 말이며 글, 한국생활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가 무척 적극적이었다. 그런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인사할 때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 이

름이 부강대우 부강? 대우? 대우를 부강하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잠깐 즐거웠는데, 한국에 처음 들어와 공장에 입사해서 직원식당 아주머니가 어려운 부강대우라는 베트남 이름 대신 비슷한 발음의 부강대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는 부강대우가 되었다.

베트남에서는 맏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 맏이는 성별의 구분이 없이 가족의 생계를 맡아야 하는 책임이 일정 부분 어깨에 메어지게 된다고 했다. 그 역시 맏이로 태어나 그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또 그런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자그맣고 깡마른 체구에 하얗고 가녀린 손은 고생 없이 곱게 자란 청년처럼 보였고, 내 아들과 같은 나이인 그를 보니 더 보듬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난 일요일에는 그가 조그만 소형차를 직접 운전해서 왔다.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해서 꼭 안아 줬다. 회사 사장님의 아내가 타던 차를 싸게 샀다고 자랑하며 활짝 핀 벚꽃처럼 화사하게 웃었다. 외국인센터의 프로그램 중 운전면허취득 과정이 있는데 그곳에서 배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차까지 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특한 일인지.

아주 오랜만에 순댓국을 사주겠노라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언젠가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순댓국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친구와 함께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타이였다. 여릿한 얼굴에 깨끗한 피부를 지닌 그는 손가락의 부재 때문인지 왠지 우울하다. 자신 감도 내려놓은 것 같고, 그런 그의 모습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이상하리만큼 미안한 내가 그의 얼굴에 비친다. 옅은 감색 버버리코트에 체크 무늬 남방으로 한껏 멋을 냈고, 머리는 단정하고 가지런히 빗어진 상태며, 검은색 구두는 반들반들 윤이 난다. 타이는 한국에 온 지 석 달 만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잃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이기도 했지만,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 하는 작업장이었는데, 잠깐의 방심으로 장갑이 기계에 딸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넉 달 동안 열한 번의 수술을 거쳐 다친 왼손 엄지손가락은 형태는 잡혀가고 있지만,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가 짧게 매듭지어있는 상태로 아직도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훗날 생채기로 남은 손가락을 보며 그는 한국에서의 아꼈던 날을 기억할 것이며,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 손가락을 보며 지나온 시간을 웃으며 얘기할 수 있길 바라본다. 베트남에서 온 타이도 만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도 많은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채 큰 꿈을 안고 한국 땅 시흥시로 오게 되었고, 그러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밥을 먹는 내

내 그는 왼팔을 내보이려 하지 않았다.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오른손을 바빠 움직일 뿐이었다. 파릇한 나이에 마음에 웅숭그리듯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깊이 뭉개놓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아픔이 내겐 또다시 상처 되어 가슴에 쌓인다. 미처 물어보지 못한 타이의 꿈이 궁금하다. 타이도 베트남으로 가서 분명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이고, 미래의 꿈을 위해 날마다 열심히 살아내고 있을 것이다. 대우와 타이의 시흥에서의 생활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버팀목이 되고 있다.

대우의 꿈은 훗날 베트남으로 돌아가 한국 음식 전문식당을 여는 것이다.

이곳에서 김치에 길들여진 입맛을 쉽게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말이며 한국과 베트남의 식성이 많이 닮았다는 말을 한다. 김치의 가격이 베트남에서는 꽤 비싼 모양이다. 함께 가서 김치 공장이나 할까 하며 실없는 소리를 했다. 타이 또한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을 미래를 생각해 본다. 나는 그들의 꿈이 주저앉지 않기를 바란다. 부디 이곳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이 꿈꾸는 근사한 한국음식 전문식당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한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훗날 베트남여행을 간다면 그가 운영하는 멋진 한국식당에 앉아 그와 두런두런 한국에서의 추억과 고단했던 옛 얘기들을 나누고 싶다. 그렇게 둘러 앉아 있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능곡동의 송덕비, 그것이 알고 싶다!

글. 심우일 소래고등학교 교사, 훈개

시흥시 능곡동 617번지 영모재공원내에 2기의 비석이 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낭정호 송덕비다. 송덕비는 시흥능곡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자연 마을인 삼거리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갓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비석을 김규성 씨 등 뜻있는 마을 주민들의 보호로 이곳으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 동안 송덕비에 대한 실체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 원고를 통해 낭정호 송덕비의 면모를 밝히는 바이다.

1. 송덕비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긴 비석을 말한다. 일명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유애비(遺愛碑), 애민비(愛民碑), 선정비(善政碑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정사를 베푼 관리를 위해 이런 종류의 비석을 세운다. 하지만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한 유지급 인사들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도 많다. 낭정호 송덕비는 성격상 후자에 해당된다.

2. 송덕비 위치

송덕비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야 널리 홍보가 된다. 이런 까닭으로 교통의 요지, 장터 등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세웠다. 1932년에 건립된 낭정호 송덕비도 장터에 있었다. 이 장터는 1916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삼거리장(三距里場)이다. 지금의 시흥시 능곡동 삼거리 마을 일대다. 이곳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장이



낭정호 송덕비

있고 그 중심에 송덕비가 소재하였다.

3. 송덕비 비문

가. 송덕비 앞면

낭공정호 송덕비(浪公定鎬 頌德碑)

유아낭공(唯我浪公) 춘경추렴(春耕秋斂)
금세활불(今世活佛) 보급주홀(補給周恤)
소작세민(小作細民) 만구공송(萬口共頌)
영보구명(永保軀命) 재차명비(載此銘碑)

나. 송덕비 뒷면

소화칠년십이월일(昭和七年十二月日)

다. 번역문

낭정호 송덕비

오직 우리 낭공만이 봄에 밭 갈고 가을에 거두
시네

현세에 살아있는 부처님같이 도와주시고 두루
구휼해주시네

소작하는 영세민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시네
영원히 몸과 목숨을 보전하시기를 바라며 이 비
문에 신노라

소화7년(1932년 12월) 12월

4. 낭정호 송덕비 건립 관련 신문 기사 내용

1932년 12월 8일 매일신보에 낭정호 송덕비 건립
에 관한 기사가 실린다. 경성부 다옥정 74번지(지
금의 서울시 중구 다동으로서 서울시청 동북쪽 일

대)에 거주하였던 낭정호씨 관련이다. 34년 전인
1898년경부터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지금의 시흥
시 능곡동 및 장현동 일대)에 갖고 있던 토지 17석
두락(약 3만 4천평)의 소작인들에게 곡식의 종자
를 무료로 배부하고, 소작료 운반비를 스스로 부
담하는 선행을 하였다. 이에 감격한 38명의 소작인
들이 소작으로 하는 논과 밭의 1두락(200평)당 50
전씩 각출해서 송덕비를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아
래는 구체적인 신문기사 내용이다.



낭정호 송덕비 건립기사

제목 : 낭지주의 독지(소작인이 송덕비 건설)

(영등포)경성부 다옥정(茶屋町) 74번지 낭정호(浪
定鎬)씨는 거금삼십사년전부터 시흥군 수암면 능곡
리 소재토지 십칠석두락의 소작인들에게 매년 궁춘
(窮春)에 일으려 종곡(種穀)을 무료배부할뿐 아니라
소작료의 운반비를 자담(自擔)해야왔으므로 그 소작
인들은 항상 낭지주의 독지에 만흔 칭송을 하여오든
바 금반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권희(權禧)의 삼십칠
명의 소작인들은 그 소작전답 일두락에 대해하여 금
오십전씩을 각출하여 낭지주의 송덕비를 건설중이라
한다.

5. 낭정호는 누구인가?

출생과 사망,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삶의 궤적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우선 그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 경까지 살았던 인물로 보인다. 황성신문 1908년 05월 07일에는 ‘해동졸업(海東卒業)’이라는 기사 제목 아래 “私立海東新塾에서 第一回卒業試驗을 經 嚙啖犁娑 英語科에 犁 崔榮德玄鼎健朴宗薰浪定鎬 韓弼求閔泳珍六人이오 日語科에 犁 白俊基崔鳴宇 韓柄教三人이오 進級生에 犁 李獻春等諸人이라더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여기에 영어과 졸업생 중의 한 명으로 낭정호가 등장한다. 그가 다닌 학교는 황해도 해주에 있던 근대식 사립교육기관인 해동학교임을 볼 때, 낭정호는 황해도 해주 지방 출신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영어과 졸업생으로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났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근대 문물을 빨리 받아 들이면서 사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행회사요록(朝鮮銀行會社要錄) 1925년판에 피혁 제품의 원료와 그 부속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유풍상회(裕豐商會(合資))의 사장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자회사였던 유풍상회는 1925년 6월 28일에 설립되었고, 경성부 황금정 1정목 181-3번지(지금의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일대)에 회사의 본점을 두고 경영을 해 나갔다. 이후 회사 경영을 통해 축전된 부를 기반으로, 한편으로는 시흥 능곡동 일대 등과 같은 토지를 사들이기도 하

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나눔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신문기사 내용들은 낭정호의 기부 활동에 관한 것으로 그의 나눔 활동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낭정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흥 능곡동 일대의 전답 소작인들에게도 덕을 베풀었으며, 이에 소작인들은 감사의 뜻으로 송덕비를 건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 浪定鎬 二元 (在桑港遭難同胞의 救恤金廣告-1906년 5월 12일-대한매일신보)

재샌프란시스코에서 조난을 당한 동포에 대한 구휼금으로 2원을 기부했다는 내용

■ 浪定鎬 一元 (國債報償義捐金收入廣告-1907년 6월 22일-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의연금 수입으로 1원을 기부했다는 내용

■ 浪定鎬 五圓(水災同情金-1925년 8월 27일-동아일보)

수재 의연금으로 5원을 기부했다는 내용

■ 一金一圓也(일금일원야) 市內茶屋町(시내다옥정) 浪定鎬(낭정호)(忠武公遺蹟保存問題로 追慕의 結晶體誠金還至(결정체성금답지)-1931년 8월 22일-동아일보)

다옥정에 사는 낭정호씨가 충무공 유적보존을 위한 성금으로 1원을 기부했다는 내용

■ 浪定鎬 一圓(救濟金還至-1928년 9월 20일-동아일보)

구제금으로 1원을 기부했다는 내용

경효재(敬孝齋)의 미래가치를 묻다

글. 박경빈 경기문화관광해설사

유적을 바라보는 시각

요즘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송례문이 뜨겁다. 5년 3개월여의 복원공사가 부실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단청의 균열과 박락에서 비롯된 부실자재의 사용, 원칙 없는 전통 공법의 적용까지 공사과정이 낱알이 드러나고 있다.

19세기가 '역사'를 주제로 공존했다면, 20세기에는 '공간'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21세기. 유적을 바라보는 보통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어서 역사를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의 현대 도시 속에서 오래된 건축들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시대와 대립적인 것을 고유한 가치로 유지하면서 동시대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있다.

성숙한 공간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연속성의 개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위상의 개념에서 건축과 사람간의 '관계와 구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국민적 관심이 쏠리지도 않고 그저 '그곳에 있다'는 정도로만 자연스러웠을 송례문이 다시금 우리를 과거의 역사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경효재(敬孝齋)를 통해 유적을 바라보다

국보이야기를 시작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시흥시 향토유적 제 9호인 영웅대군 묘 및 신도비는 시흥시 군자동 산 70번지에 있다.

이곳에는 영웅대군의 시호를 따서 지은 재실의 역할을 하는 경효재(敬孝齋)와 사당의 역할을 하는 경효사(敬孝祠)가 있다.

경효재는 1969년 최초 건립되었고, 2001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2002년 다시 지어 올렸다.

경효사는 1997년에 건립되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시흥시에 있기는 해도 엄밀히 전주이씨영웅대군파종회(全州李氏永膺大君派宗會)의 소유다.

전주이씨영웅대군파종회에서는 해마다 음력 2월 초이튿날에는 기제사(忌祭祀)를,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에는 시향(時享)을 지낸다.

매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종중 200여명이 모여 시향을 지내는 모습은 여러 의미를 시사한다.

제사는 오전 10시 경효재에서 출발해서 영웅대군 묘역까지 긴 행렬로 시작된다.

옥빛도포에 검은 유건을 쓴 제관행렬의 맨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제관과 황금보자기로 쓴 축합을 든 이가 앞장서고 이어 20여명의 제관들이 일렬로 이어지면, 전국 각지에서 온 종연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긴 행렬이 신도(神道)를 따라 홍살문을 통과하여 영웅대군 묘 앞에 정렬해 서면 제가 시작된다.

이미 상석에는 예법에 따라 제사음식이 차려져 있고, 좌집사, 우집사가 양쪽으로 선 가운데 대표 제관이 초헌, 아헌, 종헌, 대축, 집례의 수순으로 시제를 거행한다.

시제는 영웅대군 묘를 포함해 6분의 묘역에서 각각 차례대로 진행되어지며, 산신까지 7번의 제가 올려 진다.

음식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법도까지 어느 것 하나 까다롭지 않은 것이 없다. 제사음식은 일꾼들에 의해 가마에 실려 묘 앞 상석에 차려지는데, 이날 일꾼들은 7번이나 제사상에 올려 질 음식들을 가마에 싣고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는 과정에도 법도가 있어 이들은 모든 제사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를 근거로 제를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종묘제례, 사직대제, 왕릉제향, 등 전승교육을 6개월 이상 받아 직접 제례에 참여해 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자제들을 대상으로도 전통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니 가히 왕가의 후손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노력만큼은 본받을 만하다.

이야기와 함께 지켜가야

경효재의 외삼문(外三門)가운데 중앙 정문에는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죽은 사람을 소중히 하면 그 덕이 후덕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귀후문(歸厚門)'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다행히도 이 편액만큼은 2001년 화재 당시 소실되지 않아서 다시 달았다.

팔순을 바라보는 이을수(79세. 거모동) 어르신은 세종대왕의 8남인 영웅대군묘지기로 47년을 살았다. 말이 47년이지 그동안의 노고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로 짐작된다.

어르신이 묘역을 관리하는 기간 중에 화재가 나서 지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젊었을 때는 일을 겁내지 않고 잘 해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농사짓는 일도, 묘역을 관리하는 일도 쉽



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묘지관리인들은 대부분의 관리비용을 농사를 지어서 충당한다. 처음 이곳에 왔을 1963년에 논 여섯 마지기로 시작한 농사는 점점 늘어나 100마지기의 농사를 직접 지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묘역을 둘러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서 자리에 누울 때까지 잠시도 쉴 수 없

이 농사일에 매달렸던 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다.

지금이야 기계가 좋아 묘역의 풀들을 깎는 일이 그리 어렵진 않지만, 그 시절엔 낫으로 일일이 베어내야 해서 사람을 사서 하는 적이 많았다. 제사 때면 농사지은 것으로 떡을 빚고, 두부를 만들고, 전을 부쳤다. 곁에서 묵묵히 그 많은 음식과 종종 손님을 치러낸 아내와 자식들이 없었으면 해낼 수도 없었을 일들이다.

3년 전 어르신은 묘지관리를 그만두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세가 많으니 그만두라는 종중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이곳에 묻었다. 그 많은 세월동안 이곳을 관리하면서 일어난 일들은 고스란히 어르신의 가슴속에만 있다.

“그래도 내 삶의 전부였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사람들이 돛자리 펴고 놀다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가고, 아이들도 묘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은 안했으면 해, 내 맘처럼 아끼고 소중히 다뤄주길 부탁하고 싶어”

묘지기를 그만 둔지 3년. 여전히 아침이면 묘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을수 어르신에게는 이곳이 영원한 고향이라고 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송례문도 복원되어서 2013년이라는 시점을 지났다.

경효재도 복원되어서 2002년산이 되었다. 각각의 건축물이 가지는 의미는 달라도 결론적으로 모두 동시대의 건축물로 초기화(reset)되었다.

앞으로 100년, 천년 후의 사람들에게 송례문이나 경효재는 어떤 가치로 비춰질 것인가

여전히 하나는 국보의 가치로, 하나는 향토유적으로만 남아있을까?

그저 오래된 역사에 지나지 않는 유적으로 퇴색되지 않고, 늘 사람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공간이 되려면,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서 출발한 스토리의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효재와 함께 살아온 이을수 어르신의 스토리의 발굴은 좋은 예이기도 하다.

건축과 사람간의 '관계와 구성' 문화원이 문화유적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고민해야 할 때다.

Greg Priester(그렉 프리스터) 스타강사를 만나보다

글. 안준상 편집위원장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끔 TV나 대중 매체에서 한국말을 잘 하거나 한국 노래를 잘 부르는 외국인 보면 외국인 많지 않았던 예전 만큼의 신기함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외국인 중 한 사람이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고 시흥시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대중 매체에 나와 '저는 시흥시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시흥시민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뭔가 뿌듯하고도 고마운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몇주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그렇게 말한 외국인이 있어서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이름은 Greg Priester(그렉 프리스터), 미국, South Carolina(사우스 캐롤라이나) 태생, 한국나이로 30살, 한국에 들어와 산 지는 만 6년이 되었고 지금은 시흥시 정왕동 티엔티 어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2008년 경기영어마을 파주 캠프에서 시작된 그의 한국에서의 삶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영어강사 자격이지만 흑인이라는 태생 때문에 적지 않은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편견들 때문에 맘 고생을 많이 했다. 2011년 경기영어마을 그만 두고 같은 직장 상사였던 천용수(현재 티엔티 어학원장)를 따

라와서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영어강사로 근무하기 전 까지도 여러 공공 교육기간과 사설 학원에 일 자리를 지원하고도 실제로 면접시에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번 퇴짜를 당했었다. 지금은 정왕동 티엔티 어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영어강사로서 시흥시민임을 자부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학원의 오전 수업시간의 주부반에서는 더욱더 그 인기를 더 하고 있다. 그 인기 비결에는 우선 그렉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에서 정규 교사 자격증이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대학에서는 영어학과 수학 대학원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한 진정한 교육자이다. 그는 학생연령층이 어떻든 그 연령에 맞게 영어학습을 구성한다. 한국인에게는 끝까지 어려운 영어 울렁증은 그렉 수업시간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수업 시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는 학습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즐기는 순간 쉬워진다고 말한다. 그 다음의 인기 이유는 스타 영어강사라는 것이다. 그렉은 남달리 노래를 잘한다. 특히 한국 노래에 푹 빠져 산다. 사실 미국에서는 노래를 들어만 봤지 대중 앞에서는 불러보지

못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사람, 한국 노래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한국노래 가사를 다 외워서 부른다. 그 가사의 뜻도 이해한다. 지금까지 그렉은 전국 노래자랑을 비롯해, 전국 외국 이주민 노래자랑, 슈퍼스타 K, 히든 싱어, 스타킹 등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에 초대되어서 시흥시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2등을 했고 '전국노래자랑 영화' 에서도 잠깐 출연을 했다. 그는 시흥시에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 그가 시흥시에 와서 스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스타강사 되기까지는 지금 티엔티 어학원의 천용수 원장의 역할도 중요했다. 그렉이 문화적 차이점으로 인한 충격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시흥시민의 일원이 되기까지 천원장이 옆에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또한 미국에서 유학시(뉴욕 주립대 졸업) 그렉과 같은 인종 차별,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몸소 경험했다. 그렇기에 그렉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천원장은 시흥시 토박이(원주민)로서 미국 유학 이후 경기영어마을에서 7년간 근무, 고향에 돌아와 시흥시민과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1년 티엔티 어학원을 개원했다. 앞으로 그는 다른 도시에 비해 시흥시가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국제화 도시로서의 시흥시 건설에 일조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흥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흥시의 특징 또한 그렉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그

렉은 시흥시의 다양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렉이 좋아하는 육개장, 감자탕, 오이도의 회와 해물 칼국수, 서해안의 일몰, 시흥시 사람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제 2의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다. 실제로 그는 시흥시 공무원 영어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시흥시청 공무원 영어 동아리 회원들의 영어 교육을 지도한다. 그는 시흥시를 사랑하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왔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랑스럽게도 한국말로 '저는 시흥시 정왕동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사는 시흥시 이제는 Global(세계화)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이웃인 외국인 그들의 피부가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들이 시흥시에 거주하는 한 우리의 이웃 시흥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군자봉 성황제’

지역발전·시민안녕 기원하는 소중한 ‘마을축제’...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 노력

글. 강현숙 경기일보 기자



걱정적인 곳의 시작에 앞서 제신(諸神)이 오는 길과 있을 장소의 불결(不潔)함을 깨끗이 하는 뜻에서 지내는 곳의 첫 순서인 ‘부정거리’ 장면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1993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뒤 프랑스에 돌아가 동료 도시계획가에게 서울의 5천분의 1 축적 지변약도를 보여 주자 반응은 이랬다. “한강변의 군사기지 규모는 정말 대단하군!” 그들이 군사기지로 오인한 곳은 반포 아파트 단지였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모든 계층이 선망하는 모델이자 이상이 되었다. 동시에 우리의 아파트 문화는 70~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지별 건설방식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 커뮤니티 단절,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를 잉태했다. 그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미래지향적 공동체문화의 구축이 절실하다.

공동체문화가 숨 쉬는 지역사회가

도래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군자봉성황제’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단단하게 하는 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하기 보다는 그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만하다. 과거로의 회귀(回歸)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탄탄한 ‘공동



다섯 색깔(오방색)의 신장기를 이용한 기점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안위와 앞날을 점쳐주고 있다.

체 정신이 담겨 있다.

최소한 500년의 역사 자랑...주민들의 안녕과 화합 기원하는 '성황제'

경기도 시흥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군자봉 성황제'가 군자봉 정상 군자성황사지(시흥시 향토유적 제14호)에서 열렸다.

군자봉성황제는 그 역사가 천년 이상 된 시흥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이다. 군자봉(해발 199m)은 행정구역상 시흥시 군자동과 장현동 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이 산에서 성황제를 지냈다는 것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이미 나와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자봉성황제는 조선 초기 국가의 공식 기록물에 존재가 언급될 정도로 이 지방에

서는 널리 알려졌다. 최소한 50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성황제이다.

하지만 군자봉에서 모시는 성황신(城隍神)이 김부대왕, 즉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에 '성황신앙'이 전래된 고려시대에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후 경기지역 최대의 호족세력이 된 신라 마지

막 임금 경순왕 일가를 모시는 신앙체계였던 것.

성황신은 한 고을을 수호하는 지역 수호신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고려시대 이래 고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성황신께 빌어왔고 그렇게 비는 행사가 바로 성황제다.

군자봉성황제는 군자봉 정상에 성황당을 지어 경순대왕을 모셔놓고 매년 설달(음력 12월)에 당주와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 제를 지낸 후 경순대왕을 마을로 모시고 내려와 집집마다 유가를 돌고 삼월삼짇날(음력 3월 3일)이 되면 다시 군자봉 성황당에 모신 의례다. 그해에 농사의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3일에 풍작과 마을 안녕의 편안함을 감사드리고 매년 편안하길 기원하는 마을대동제로 이어졌다.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군자봉성황제는 고려시대 이래 백성들의 소박한 기원 풍습을 계승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

는 것.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에서 태어난 한정현 군자봉성황제보존회장은 “예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온 군자봉성황제는 일제시대 그 탄압과 압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동네 어르신들의 하나 된 마음으로 당주의 노력과 주민들의 단합 속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말했다.

군자봉성황제는 과거 시흥의 전역과 수원·안산까지 유가를 돌 정도로 큰 규모의 마을 굿이었으나 현재는 시흥시 구준물 일대에서만 이뤄지는 무가의례로 축소된 상황이다.



산불사님, 산칠석님, 산제석님을 청배해 시흥 지역 주민들의 수명장수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산불사거리'.

단순한 미신이나 무속(巫俗)이 아닌 '마을 축제'로 계승(무형문화재 지정 노력 중)

성황제의 의례 순서는 당주(堂主) 고현희와 주민들이 봉안한 서낭가를 군자봉정상으로 옮기는 절차부터 시작했다. 부정거리→산불사거리→산신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대감거리→창부거리→뒷전거리의 순서로 굿이 진행됐다.

이러한 형식을 놓고 성황제 자체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날 군자봉 정상에 오른 시민들의 마음은 매한가지. 자식 건강과 가족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의 지역발전이었다. 주민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박한 기원과 지역화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종의 '축제'라는 관점에서 성황제를 즐기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군자봉성황제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1993년 제8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해 '발굴상'을 받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흥시민속예술로서 지정받기 위한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 2004년 10월 군자봉성황제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그러한 사전연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1월 '군자봉성황제' 단행본을 민속원에서 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자봉성황제는 시흥시민들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앞으로도 향토전통예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곧 미래지향적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정원철 시흥문화원장은 “앞으로도 군자봉성황제가 이웃과 화합하고 넉넉한 인정을 나누며 나의 건강, 이웃의 기쁨, 시흥의 번영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백성들의 소박한 기원풍습이 담겨 있는 군자봉성황제가 하루 빨리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 후기

글. 정원철

시흥의 소리

2011년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시흥상여소리」의 열띤 경연으로 시흥시 장례 풍속을 경기도에 소개한 바 있었다. 대회를 마치고 수개월간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었다. 첫 출전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의 지역별 경연에서 민속상을 수상한 것이 기쁘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시흥시민과 국악인이 한데 뭉쳐 지역의 옛 풍속을 재현해 내고, 시흥 정체성의 한 면을 밝혔다는 자부심에 우쭐해진 기분이 겨우내 지속된 것이다. 박일엽 선생과 나로서는 노력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쁨도 있었다. 그 힘으로 금년 한 해도 박일엽 선생과 보조를 맞추어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던 듯하다. 올해는 시흥의 소리 중, 들노래로 정기 공연을 치루고, 시흥시 3대 축제의 하나인 연성문화제에서 시흥상여소리, 시흥바닷가노래, 시흥들노래 모두를 발표할 수 있었다.

임진년 사업계획

그동안 발굴한 시흥 향토민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시흥문화원에서 2012년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을 편성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요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교재 개발의 수요가 생긴 것이다. 그러잖아도 지난 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이형환 교수가 주관한 토속소리 발굴사업에 참여하여 '시흥의 토속민요 창'이라는 음반을 발매한 바 있어, 후속으로 「시흥향토민요 가사집」을 발간하여 체계적 전승사업으로 넘어갈 필요를 느끼던 시점이었다. 교재 집필과 더불어 향토민요 공연에 박차를 가하였다. 필자는 박일엽 선생과 함께 2009년부터 무대화 작업을 시작하여 '상여소리'를 테마로 한 공연을 4회나 올렸으며, '바닷가노래'를 테마로 한 공연은 5회를 올리어 충분한 발표기회를 가졌으나, 한 번의 공연기회 밖에 없었던 '시흥 들노래' 공연을 보강하는 계획을 세웠다. (사)서도소리보존회시흥지부의 2012년 정기공연을 『시흥들노래와 서도소리』 민속극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문화원에서도 '제21회 연성문화제'에 '시흥향토민요'를 발표 무대를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연성문화제의 발표를 통하여 향토민요 소리극 다섯마당과 시조창 공연을 올려 그간의 노력을 집대성하기로 하였다.



『시흥들노래와 서도소리』 공연

시흥 들노래는 몇몇 조사자가 있었으나 조사 결과가 유실되기도 하고 그나마도 사장되어 있었다. 2005년 12월,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발간(조사자:이소라)한 경기도 논맴소리에 몇 개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고, 또한 고 이한기 선생이 채록한 모내기 소리 가사가 있기는 하나 채록한 악보도 없고 녹음 자료도 없는 상태였다. 박일엽 선생이 들노래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화동 등지로 토박이 소리꾼을 찾아 나섰으나, 이양기와 제초제 보급으로 두레 모내기, 김매기를 그만 둔지 40년이나 되어 당시의 노래를 기억하는 이를 더는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박일엽 선생이 방산동 토박이 소리꾼 김인삼 선생을 만나 모내기소리와, 김매기 양산도,

실모소리를 채록하게 되었다. 김인삼 선생의 기억으로 호조벌에서까지 불려지던 실모소리와 양산도를 되살려 내어. 지난 2010년 시흥시 여성회관에서 생금집 전설과 시흥 들노래를 결합한 『생금 닭 보러가세』라는 시흥시 민속극 공연을 발표하였다. 당시 김인삼 선생이 직접 출연하여 자료적 가치를 더 한 바 있었다.

2012년 『시흥들노래와 서도소리』는 6월 2일, 여성회관 무대에 올랐다.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이며 경기도 문화재위원인 양종승 박사께서 시흥 들노래의 민속적 가치를 해설하였고, 중요무형문화재29호 서도소리 보유자인 이춘목 선생과 황해도무형문화재3호 보유자인 이문주 선생도 출연



하였다. 농삿일에 바쁜 김인삼 선생도 참석하시어 객석에서 축하의 박수를 쳐 주셨다. 첫 번째 순서로 '시흥 모내기소리'를 하고, 이어서 두레풍물을 치고, 다시 시흥 감매기소리 '실모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흥을 돋우었다. 이윽고 새참이 들어오면서 어깨춤을 들썩이는 풍물을 즐기고, 다시금 재벌 모내기로 '양산도(제비나도)'를 불렀다. 300여 좌석을 꽉 메운 청중들은 흥겨워 박수치며 즐거워하였다.

이어서 서도소리 농요가 이어졌다. 연평도 조기잡이와 염전 산업, 6.25 동란을 거치면서 시흥의 소리가 되어버린 '서도소리'가 공연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액막이 파경 공연과 발김매기 노래인 '호미타령'으로 공연이 풍성해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서

도소리 보유자인 이춘목 선생이 단원을 이끌고 재현해 주었다. 다음으로 파종에서 감매기까지 수개월 이어지던 농사일을 멈추고 하루를 즐기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의 호미씻이 판굿을 하였다. 치열한 노동 끝에 연회를 즐기는 멋이다. 오방진가락으로 한테 아우러져 춤추면서 서로 수고를 격려하였다. 이어서 황해도무형문화재 서도산타령 보유자인 문주 선생께서 단원들과 함께 '쾌지나칭칭나네'를 불러 흥을 돋우었다. 다시금 무대에 오른 양종승 박사께서 시흥시가 서도소리 권역인 까닭을 해설하시고 마지막으로 경기민요 방아타령으로 〈시흥들노래와 서도소리〉 공연을 마쳤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가정과건강봉사원 센터에서 돌보아 드리는 어르신들을 봉사원들이 모시고 함께 공연을

즐겼으며, 함현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들과 봉사자들도 공연을 즐겼다. 모두 농경민족의 후예들이어선지 상기된 표정으로 박수 치며 즐겼다.

특별한 「시흥 상여소리」 공연

지난 해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좋은 공연을 선보였다는 이야기가 여기 저기 전해졌다 보다. 시흥시 사회복지관에서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5월 29일, 정왕공설 공원묘지에 자연장지를 새로이 개설하는데 식전 행사로 「시흥 상여소리」를 공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시흥향토민요를 배우는 학생들과 의논하였더니 공원묘지에서의 공연인데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상여소리를 중심으로 30분 진행할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망자에게 절례가 되지 않으면서 산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으로 선곡하였다. 판소리 단가인 '사철가로 인생무상의 분위기를 만들고, 다음 곡으로 구슬픈 '정선아리랑'으로 분위기를 가라 앉혔다. 이어서 '시흥 상여소리'를 부르고 자리걸이 노래인 '어화녀'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회심곡'을 불러 이승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화목하게 살자는 내용의 가사를 전달하였다. 모두들 숙연히 경청하고 박수를 쳐 주었다. 박일엽 선생과 문하생들은 개장식에 참석한 내빈들의 반응에 기뻐하였다. 공원묘지에서의 공연도 마다 않는 국악인의 사명감에 감사하다는 후문도 들려왔다.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 발간

향토민요의 전승에 있어 가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사의 전승이다. 선율의 전승은 아름다운 느낌은 주지만 가시적이지는 못한데 비하여, 가사는 당시의 상황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크다. 민요의 전승은 기본적으로 구전심수(口傳心授), 즉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이기에 전승은 가집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그런 이유로 향토민요 발굴 초기부터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 발간을 계획하여 왔는데,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에서 시흥향토민요반 학생들을 가르칠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승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박일엽 선생이 가사를 정리하여 엮고 나눈 해설을 맡기로 하였다.

4월 달에 착수하였는데, 박일엽 선생은 자신이 발굴한 향토민요 가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굴되어 있던 가사를 망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2005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지회에서 발간한 논맴소리, 그리고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 속의 새우개마을 민요 가사, 그리고 시흥시 향토사료실에 근무하던 고 이한기 선생이 채록하여 시흥시 홈페이지와 시흥문화원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흥시 향토민요를 함께 넣기로 하였다. 편집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토론을 하였다. 제일 오랜 시간 토론한 내용이 시흥시 향토민요 가사집에 실을 민요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장할 것인가였다. 토론 끝에 우리는 신석기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온 시흥시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향후 전승시켜야 할 시흥시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포함해야 한데 동의하였다. 토박이 소리꾼에게서 발굴 채록한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근래 시흥시를 소재로 창작한 민요 가사들의 기록도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런 토론 끝에 필자가 2003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한 '배따라기'에서 신민요 창작가사로 쓴 '출항 배치기'와 노랫가락의 선율에 올린 창작시조 '관곡지 연꽃', 금강산타령의 선율에 올린 창작시조 '시흥구경을 실었다. 또한 향토민요 이외의, 선비들이 부르던 시조창과 송서도 함께 실을 것인가의 토론도 꽤 길게 토론하였다. 선비의 문화인 시조창은 민요의 범주를 벗어나지만 시흥시 지역에서 부르던 노래였으니 주석을 달면 향토민요와 구분이 가능하니, 시흥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실자는데 뜻을 모았다. 시조는 문양부원군 류자신의 시조 '추산이'를, 송서는 현재 시흥문화원에서 서예를 가르치시며 성재서당을 운영하시는 전남훈 선생에게서 채록한 '명심보감'을 실었다. 혹자는 시흥향토민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지적하겠

으나 시흥시의 미래 지향적 정체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빼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은 십 수 년의 발굴과정과 함께 편집에 있어서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한 끝에 탄생하였다. 향토민요 시민 수업 종강날인 10월 18일 정왕동 '박일엽국악전수소'에서 출판기념식을 하였다. 정상중 문화원장님과 향토민요반 학생 23명이 모인 자리에서 필자의 경과보고에 이어 정상중 원장님께서 발간사를 하시고, 위은이 박일엽 선생의 인사말씀이 끝나고 조출한 파티를 하였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끈한 절편 한 말에 막걸리와 두부, 김치가 전부인 파티였지만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을 기획하여 강좌 개설 및 책 발간의 기회를 준 시흥문화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승사업에 동참한 시흥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

향후 과제

시흥시 향토민요 발굴 및 채록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통 민속은 사라졌다. 바닷가 노래가 들려오던 포동 새우개마을의 어선 출입이 끊긴지 50년, 호조벌에서 두레김 매기를 하던 시절도 역시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그 노래를 기억하던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수소문하여 어렵게 토박이 소리꾼을 만나도 기억을 되살리는 데에는 박일엽 선생과 긴 시간 입을 맞추고 나서야 기억을 되살리곤 했는데, 그나마 그런 분들마저 다 돌아가시고 있다. 이대로 이십 여년이 더 지나면 문헌과 음반, 그리고 전승교육 받은 전문국악인에 의해서만 시흥 향토민요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흥문화원에서 금번에 발간한 시흥향토민요가사집 발간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작업을 직접 수행한 국악인 박일엽이 체득한 향토민요의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예지력은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의 결합으로 피어난다고 한다. 즉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혜안은 과거의 궤적을 이해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지식이 깊은 상태에서, 통찰력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전통과 역사, 민속을 소홀히 생각하는 이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명문이다. 또한 예술가가 대작을 탄생시키려면 고전을 잘 알아야한다고 한다. 대작을 탄생시키는 예술가들은 고전에 정통하다는 말이다. 그러한 말들을 생각할 때에 시흥 향토민요에서 추출되는 정체성은 시흥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기초지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당장 필요성이 없다고 진정한 필요를 외면하는 미래설계는 결국 무너질 건축 설계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고전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풍토를 청소년 시절부터 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 중학교 시절부터 고전과 민속을 접하게 해주어야 한다. 빠르게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는 일이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목표를 향해야 하는 악순환의 원인임을 아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많이 다를 것이다. 그 청소년들의 힘으로 생명도시 시흥, 문화입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민속의 발굴 및 전승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참으로 고된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돈 되는 일이 아닌 때문이다. 그러나 박일엽 선생과 필자는 그 고된 여정을 거쳐, 지난 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음반을 발매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국악인 박일엽과 문화원이 시흥향토민요 가사집을 출간하였다. 누군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소리들을 악보화하고 음반으로 발매하여 백년 전승의 기초를 완결해야 할 줄로 믿는다. 또한 시흥 향토민요를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시흥시 민속에서 정체성추출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서울에 근접해 있고, 광역시 인천에 붙어 있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는 시흥시, 시화 스마트 허브의 활성화와 함께 전통 민속의 흥성이 더할 때에 과거 시흥군의 위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예가 전남훈

글. 전남훈

문화원에서 서예교실을 담당하는 서예가 전남훈 선생님을 통해 서예와 문화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한다.

서예는 글자를 통해 인간 내면에 잠재하는 감성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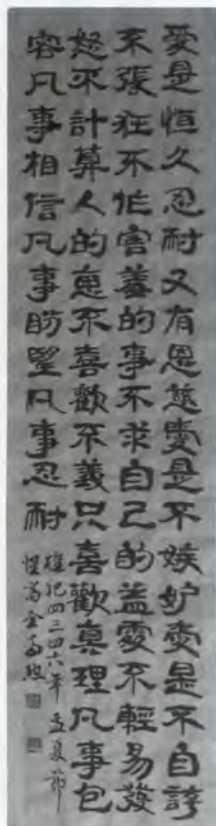
서예는 문자를 통해 인간 내면에 잠재하는 감성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성은 본인이 처해 있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욕구하는 본능으로, 자기 발전을 소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예를 배우고 자습하다 보면 첫째 자기 내면의 수양을 쌓게 된다. '서권기문자향(書卷氣文字香)'이란 말이 있다. 만권의 책을 읽어서 그 속에서 수양을 얻는다는 뜻

이다. 두 번째로 자기 수양을 위해서는 많은 경서를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붓을 통한 자습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단전호흡을 하게 되므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 꾸준한 자습과정이 마음을 진정시켜 심신을 편안하게 만든다.

수련으로 서예 연구에 전념, 그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표현

서예를 시작한 것은 특별한 계기는 없다. 어려서 집안이 가난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서예의 길로 접어들었다. 다만 내가 좋아서 시작한 서예이다.

오랜 세월 서예를 해오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예술인이 다 그랬듯이 경제적인 소득이 없으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



성재 전남훈
작품(예서체)

른 직업을 병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서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남은 생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 축적된 필력을 쌓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예술로 표현하고 싶다.

문화는 인간행복의 근본, 시흥시를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자

젊은 시절 문화 활동가로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문화란 무엇이고 문화가 꽃피는 시흥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이 많았다.

문화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질이 높아져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의식주의 친환경 개발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이 문화이다.

우리 시흥시는 대한민국 중심 문화를 갖고 있다. 고대로부터 경기 서부의 중심 문화권이다. 우리 시흥은 예전에 교통의 중심지인 안양역 앞에 군청이 있었다. 양천구, 금천구, 과천, 군포, 안산, 광명 일대가 모두 시흥문화권이다.

근대 산업의 원동력이 시흥문화권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산업 도시로써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시흥의 고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선양해야 한다.



문화원과 함께 시흥문화의 정체성을 찾자



서예가로서 문화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다. 부원장으로서 문화원 발전으로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원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문화교실을 통해 시민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우리 시흥은 금석문화의 보고이다. 금석문을 통한 시흥의 역사를 고증하고 또 각종 문집에서 시흥문화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시흥의 인물



빈민운동의 대부

제정구(鄭廷均) 1944. 3. 1 ~ 1999. 2. 9

"하느님, 이 사람들이 제 모습을 찾고 제 목소리를 갖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저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 청계천 판자촌에서

1944년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유신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의 일선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민청학련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73년 청계천판자촌에서 "도시빈민을 내버려두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이며 위선이라는" 생각을 굳히고 이곳에 살기 시작하여 '배달학당'을 여는 등 본격적인 도시빈민운동에 투신하였다.

1977년 양평동 철거민들과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로 이주하여 복음자리마을, 1979년 한독주택, 1985년 목화마을을 건설하였다. 이곳에서 복음신용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복음장학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주민들의 자립을 주도하였다. 1981년 깊은 신앙과 신학탐구 열정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85년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를 창립,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도시빈민연구소를 세웠다.

1986년 정일우 신부와 함께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회장,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이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약했다.

1988년 한겨레민주당을 창당하여 공동대표로 일하면서 정치일선에 몸담아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시흥시)으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건설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99년 2월 9일 폐암으로 별세하였으며, 국민훈장모란장을 추서 받았다.

주최 · 주관 시흥문화원, 시흥시 / 후원 시흥시의회



소산서원 체험소감문

글. 최재우 소래고 2학년

5월의 마지막 날 따듯한 날씨에 바람도 적당히 불어 좋은 날, 저희 소래고 역사 동아리는 소산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흥에 살면서도 부끄럽게도 소산서원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신 송영화 선생님의 지도로 소산서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래고를 떠나서 삼미시장을 지나서 아름다운 시골길 같은 조그마한 길을 걷는데 주변에 꽃들이 가득 피어있었습니다. 따듯한 봄에 동아리 부원들과 기분 좋게 서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동아리 부원인 김정석 학생이 서원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담당하여 '소산서원'과 '하연 선생님'에 대한 업적과 그의 아들 '하우명 선생님'의 효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연 선생님은 세종 때 영의정으로 나라를 잘 이끈 명재상으로 인재 발굴 능력과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 다양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하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하여 셋째 아들 하우명 선생님이 '소산재'를 세우셨습니다. 훗날 지역 유림들이 소산재를 복원하고 다시 고쳐 지으면서 소산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강사님이 서원의 의미와 구조, 건축양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사님은 제가 중학교 당시 예절교육을 받을 때 뵈던 분이래 더

욱 반가웠고, 아직 지식이 부족한 저희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 해주셨습니다.

서원에 대해 지식을 쌓은 뒤 강사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다례 체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구의 수가 많아 이름조차 어렵고 순서 또한 낯설고 복잡해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차를 마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의 설명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차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한 조상님들의 깊은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선조들의 지혜와 배려심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항상 공장에서 나오는 인스턴트식 녹차 팩으로만 차를 마시다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차를 마셔보니 맛과 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서 저절로 눈을 감으며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차의 향기와 차를 따르는 소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다 어울려서 오감이 즐거웠고, 마치 문학 시간에 배우던 시조의 선비가 되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례교육을 모두 받고 나서 저희는 전통 복식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옷의 의미와 모양새와 문양에 담긴 의미,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계급, 옷

에 얹힌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옛 그림에 나오는 옷을 실제로 보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를 선택하여 입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옷은 혼인할 때 여성이 입는 원삼, 학식이 깊은 학자가 입는 심의, 궁중의 여성이 입는 당의, 문관들이 입는 사모관대와 양반 집 자제가 입는 사규삼, 저고리와 치마, 선비들이 입는 도포와 장원급제를 하였을 때 입는 앵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색깔이 아름다운 도포를 골랐습니다. 갖까지 갖추어 정식으로 입은 후 밖으로 나와 보니 주변의 산과 서원의 경치가 어우러져 정말로 제가 조선시대의 선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옷들을 직접 입어 보는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좋은 추억을 새긴 것 같아 기쁩니다. 이렇게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서원에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 복식 체험을 하고나서 약간의 오르막길을 올라 하연 선생님의 묘에 직접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자리인지라 앞에는 시흥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고, 뒤에는 소래산이 듬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가슴 벅찬 마음을 안고 소래고등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교의 일정상 주변의 경치를 더 둘러보지 못하여서 아쉬웠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방문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저는 조선의 가장 빛나던



세종 시대의 영의정을 지내면서 나라를 잘 이끈 하연 선생님과 그 가르침을 이어가던 소산서원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쁘게만 살아가던 저희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좋은 추억을 심어준 소산서원이 시흥에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흥시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희와 같은 체험을 하고 좋은 추억과 시흥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동안 항상 좋은 체험을 하려고 타 지역으로 나갔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잘 몰랐던 소산서원에서 좋은 역사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시흥의 문화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시흥의 자랑 시흥능곡고등학교 취타대

인문과 예술교육의 접목으로 신명나는 학교생활

글. 안준상 편집위원장

‘딩—쿵—쿵—덕쿵—’

대장 지휘자를 선두로 나발, 나각, 태평소, 용고, 자바라, 징, 장구, 팽과리 등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능숙한 자진모리 장단이 흥겹게 연주된다.

우리 전통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임금의 거동, 높은 벼슬아치의 행차, 군대의 행진 등에 쓰이는 취타대를 현재 시흥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우리 전통 사수의 선봉으로 여기며 육성하는 학교가 있다.

하늘을 울리고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시흥능곡고등학교(교장 오철환) 취타대가 바로 오늘 시흥의 자랑이다.

시흥능곡고등학교 취타대는 지난 2011년도에 생긴 동아리로써 전통음악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세계에 알리며 아울러 시흥시가 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능곡고가 인문과목과 예술교육을 함께하는 신명나는 학교라는 것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4년째 취타대를 운영하고 있는 시흥능곡고등학교에서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재량활동 수업을 통해 취타악기 연주 연습의 기

회를 제공해 국악의 생활화에 힘쓰며, 인문과목과 예술교육을 함께하는 신명나는 학교로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동아리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방과 후에 취타대 및 사물놀이 연습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각종 공연에 참여해 학교와 시흥시를 대표하여 우리의 국악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시흥능곡고의 취타대는 일반 고등학교의 단순한 동아리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에는 월등한 실력을 자랑한다.

지난 2012년과 2013년도에 시흥청소년예술제 경연대회 최우수상과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각각 2년 연속 수상했다.

뿐만아니라 2012년도에는 것처럼 시흥능곡고 취타대 연주실력을 인정받아 수원 화성축제 정조대왕 능행차에 국방부 취타대와 합동으로 선두행렬에서 시가행진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경기도 종합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제13회 부평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참가한 각급 예술고등학교 국악전공 기악부분 학생들이 40여팀 중 은상, 제14회 전국부평풍물축제 사물놀이 부분에서 금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담당교사인 권인경 선생님은 전국부평풍물

축제에서 전체 참가팀 중에 단 한 분에게만 수여되는 지도상인 인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시흥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흥시민의 날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어울림 송년콘서트, 연성 문화제 거리공연, 월곶 포구 축제 축하공연, 오이도 조가비축제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시흥시 선수단 선두 행렬 공연을 펼쳤다.

작년에도 시흥시 테니스 협회장기 개막 공연과 시흥과학축제 개막 공연, 농골제 축하 공연 등을 이어갔으며, 2012년 일본 교원단체 탐방 환영식과 2013년 제50회 화성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선두행렬 등 대·외적인 행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시흥능곡고등학교 취타대 단원들은 황금색 취타대 옷을 단체로 갖춰 입고 우리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취타대 단장의 지휘아래 일렬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장관을 연출할 때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느낀다고 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한다.

권인경 지도교사는 “공연을 위해 꼬박 밤낮없이 연습을 한다. 참 힘들게 묵묵히 따라주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능곡고 취타대의 미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2학년 백수현양은 “한여름에 여러 겹의 옷을 입고 행진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움을 이겨 내고 있습니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시흥능곡고등학교 취타대의 다음 목표는 경복궁에서 열리는 임금 행차 시연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의 멋진 포부에 응원과 기대를 해 본다.



문화강좌안내

수강생 모집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문의 ☎ 317-0827, 0821

※ 수강료는 3개월분입니다(재료비, 교재비 별도)

번호	강좌명	요일 및 시간	강사명	수강료(3개월)
1	서예, 한문	화)10:00~12:00	전남훈	60,000원
2	문인화	월)13:00~15:00	김영호	60,000원
3	민 화	화)10:00~12:00	김이랑	60,000원
4	한지공예	금)10:00~12:00	신은경	30,000원
5	한국무용	화)16:30~18:00(고급) 수)10:00~11:30(고급) 수)13:00~14:30(초급)	조대식	150,000원(고급) 60,000원(초급)
6	시조창	월)10:00~11:00	박일엽	60,000원
7	경기민요	월)15:00~16:30	문운자	45,000원
8	서도소리	월)11:00~12:30	박일엽	60,000원
9	정형시 창작	수)15:00~16:30	정원철	무료
10	기타교실	수)10:00~11:00(초급) 수)11:00~12:00(중급) 토)13:00~14:00 (청소년, 어린이)	김상욱	60,000원
11	노래교실	월)10:00~11:30	이희제	30,000원
12	쥬마밴드	목)10:30~12:00	최진영	120,000원
13	동화발레	목)16:10~17:00	김미란	60,000원

※ 강의일정 및 시간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시흥의 문화 지킴이와 알림이로서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모십니다. 우리 문화와 시흥의 역사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시흥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회원이 되시려면

- 자격 : 시흥시에 거주하시거나 시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
- 일반회원 : 시흥시 거주자
- 특별회원 : 타지역 거주자
- 회비 : 회원(일반, 특별) 월 3,000원
- 가입방법 : CMS 회원신청서 작성(매월 25일 자동이체)
- ※ 일시납 가능 (30,000원)

회원이 되시면

- 시흥문화원 소식지 『시흥문화』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을 무료로 우송해 드리고,
- 시흥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을 안내·초청합니다.

시흥문화원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https://www.facebook.com/shculture> 또는 페이스북에서 시흥문화원을 검색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시흥시의 문화 행사와 문화원소식을 간단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시 흥 문 화 원

www.shculture.or.kr

www.facebook.com/shculture

※ 문 의 : ☎ (031)317-0821, 317-0827 /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3(조은프라자 4층)



시흥문화원

Siheung Culture Center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3(조은프라자 4층)

T. 031-317-0827